

2020年 7月 10日 創刊發行

文化領土研究

JOURNAL OF CULTURE-TERRITORY STUDIES

2020년 7월 10일 創刊 (通卷 第6號)

第4卷 1號

2023年 6月 30日 發行



(財)文化領土研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題字：友山 宋河璟

文化領土硏究

2023년 6월 29일 인쇄

2023년 6월 30일 발행

(財)文化領土硏究院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TERRITORY

(우)028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4길 47

전화 : (02)741-1690

FAX : (02)741-1691

E-mail : kish1691@naver.com

<http://www.rict.or.kr>

進行/洪起哲・編輯/張熙一

印刷 製作/大洋文化社

文化領土硏究는 비매품입니다.

차례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반한류’ 관련 연구 동향 분석/05
권진주(고려대학교 강사)

한국 시집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 발간 현황/43
박순원(광주대학교 교수)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활용한
중국 내 한국드라마 인식 분석/73
-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중심으로
이유정(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발표논문> 문화어를 통한 외국인 학습자 문화교육 방안 연구/109
정원기(한국교원대학교 강사)

문화영토연구 회칙/129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138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144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152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154

제4권 1호 논문 심사 경위/160

임원 명단/161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반한류’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권진주¹⁾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반한류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 구조 및 향후 반한류 관련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학술연구재단 RISS에 등재된 반한류 관련 학술논문 53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키워드 빈도분석, 토픽모델링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국내의 반한류 관련 연구는 2005년 1편을 시작으로 소수의 연구를 유지하다 2014년 가장 많은 편수인 10편을 기록한 이후 2023년까지 한 두편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연구 대상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며 그 외의 국가도 대만, 몽골,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둘째, 반한류 관련 연구의 상위 빈도 키워드는 ‘한류, 문화, 한국, 중국, 일본, 콘텐츠, 인식, 사회’ 등이었으며 TF-IDF의 상위 키워드를 통해 ‘대만, 중국, 일본, 재특회, 네티즌, 중동, 필리핀, 젊은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반한류 조장 세력, 부상하는 키워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LDA기반 토픽분석 결과 반한류 관련 연구를 크게 ‘일본의 반한류’, ‘문화갈등과 반한류’, ‘역사적 차원의 반한류’,

1) 고려대학교 강사

‘중국의 반한류’와 같이 총 4개의 토픽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토픽별 논문의 비중으로는 중국의 반한류 연구가 3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의 반한류 연구, 문화갈등과 반한류, 역사적 차원의 반한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반한류, 혐한류, 항한류, 연구동향분석, 토픽모델링

1. 서론

2022년 글로벌 최대 규모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넷플릭스의 인기작 ‘톱 100’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비영어권 콘텐츠로는 최고 기록을 수립했다.²⁾ 하지만 같은 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K-콘텐츠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남미에 위치한 수리남 정부가 드라마 ‘수리남(2022)’이 자국을 마약과 비리의 온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발한데 이어 베트남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던 드라마 ‘작은 아씨들(2022)’도 베트남 전쟁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현지에서 서비스도중 퇴출당했다.³⁾ 문화적 다양성의 상징인 K-콘텐츠가 타 국가의 역사, 문화, 종교에 대해 낮은 문화적 감수성을 보이는 모습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일고 있다.⁴⁾

한류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류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반한류 감정도 함께 확산되어 왔다. 반한류 현상은 크게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형성된 반한 정서에 대한 표출과 한류의 유행에 대한 경계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즉, 일

2) 정주원, 「넷플릭스 톱100중 K콘텐츠 16개...“외국인이 더 즐겨찾네”」, 『매일경제』, 2022년 12월 15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3) 양승준, 「“한국군 1명이 베트남 100명 죽여”...‘분노 유발자’ 된 K콘텐츠」, 『한국일보』, 2022년 10월 11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4) 양승준, 「역린 건드린 K드라마·예능, 떨어진 수출... 미운털 박힌 이유」, 『한국일보』, 2023년 4월 24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5) 허윤정 외, 「필리핀의 한류수용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6, 156쪽.

본과 중국에서 각각 대두되는 혐한류(嫌韓流)⁶⁾와 항한류(抗韓流)⁷⁾는 한류 콘텐츠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이라기 보다는 한중일 삼국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역사, 문화적 관계에 기반한 각국의 민족주의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⁸⁾ 반면, 한국과의 첨예한 역사적 갈등이 없던 제3국가에서의 반한류 현상은 문화접변(acculturation) 현상의 일종으로 외래문화가 다른 문화권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 간의 갈등 및 충돌로 볼 수 있다.⁹⁾ 예를 들어 한류 수용국가 내 기성세대가 자국 문화에 대한 보호 의식 및 청소년 문화 보호를 위해 한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¹⁰⁾ 자국의 종교적인 가치와 위배된다는 이유로 케이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거나 또는 자국 내 열광적인 한류 팬들에 대한 반감으로 표현된다.¹¹⁾

이처럼 한류 수용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 반한류 정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한류의 인기가 매해 확산될수록 전 세계적인 반한류에 대한 공감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매해 발간하는 해외한류실태 조사에 따르면 14개국을 대상으로 2015년에 반한류 공감도를 조사

6)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을 혐오한다는 의미의 ‘혐한’, ‘혐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한국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우월한 일본이라는 관점을 내포한다. (한영균, 『일본 내 ‘혐한류’의 전개와 현황』, 『일본문화연구』, 제82권, 동아시아일본학회, 2022, 345쪽.)

7) 중국 내 학계나 정부기관에서 ‘반한류’와 관련된 공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과 언론보도 등에서는 외국 문물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항(抗)한류, 또는 저제(抵制)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주형, 『중국에서의 반한류(反韓流) 현상에 대한 연구』, 『외국학연구』, 제21권,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2, 236쪽.)

8) 주정민,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한류’현상의 원인과 대응: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제2호),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3, 137쪽.

9) 윤경우,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동북아역사논총』, 제76권, 동북아역사재단, 2022, 47-85쪽.

10) 허윤정 외, 앞의 논문, 165쪽.

11) 김수정·김은준, 「동남아시아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제3호), 한국동남아학회, 2016, 18쪽.

한 결과 전체 평균이 16.2%였던 반면¹²⁾, 2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의 반한류 공감도 결과는 응답국가 평균 27.1%로 상승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의 인기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반한류 인식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지속적인 한류의 가치 증대와 확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반한류 기류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처하고자 정부와 학계에서는 주요 한류 수용국의 반한류 현상의 원인 분석을 시도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반한류에 관한 연구¹³⁾는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동아시아권 국가 내 반한류 정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¹⁴⁾ 또한 일본, 중국을 제외한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반한류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지만¹⁵⁾ 한류 수용국가와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 반한류의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는 특성상 지금까지의 반한류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의 반한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한류에 관한 어떠한 학술적 담론이 형성되어왔는지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반한류

1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5 해외한류실태조사보고서」, 2016, 269쪽.

13) 임학순·채경진, 「우리나라 한류연구의 경향 분석」, 『한류비즈니스연구』, 제1권(제1호),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한류지식센터, 2014, 38쪽.

14) 이윤경, 「반한류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2009, 4쪽.
김은준·김수정, 「일본과 중국 언론인들의 반한류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제6호), 한국콘텐츠학회, 2016, 803쪽.

15) 허윤정 외, 앞의 논문, 153-169쪽.
김은준·김수정, 앞의 논문, 802-813쪽.
곽민경, 「몽골의 반한류 네트워크 분석-미디어, 소셜, 정부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을 중심으로」, 『몽골학』, 제39권, 한국몽골학회, 2014, 271-298쪽.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 구조를 살펴보고 향후 반한류 관련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연구 동향 분석법인 내용분석을 통해 연도별 연구 현황과 대상 국가별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보완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해 특정한 개념을 파악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¹⁶⁾과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토픽을 도출하는 확률 기반 분석 모형인 토픽모델링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반한류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반한류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전방위적인 통찰과 나아가 최근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반한류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별 반한류의 생성 원인과 발전 양상

반한류는 타 국가나 지역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견되는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반감, 대항 정서, 비난 행위 등을 포괄하는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¹⁷⁾ 반한류에 관한 본격

16)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도서출판 청람, 2018, 96쪽.

17) 김은준·김수정, 앞의 논문, 2쪽.

적인 연구로 2007년 고길희¹⁸⁾가 일본의 혐한류 현상의 원인을 진단한 연구를 꼽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저자 키워드에 ‘한류와 반한국정서’, ‘반한류’, ‘혐한류’, ‘항한류’를 포함시키며 한류 우호국 내 반한 감정의 기류를 감지하고 한류의 재활성화를 모색한 연구들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¹⁹⁾

반한류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중국과 일본 내 반한류 양상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두 국가가 한류 인기 확산의 발원지이자 인접 국가로서 한국과 중첩적인 역사적,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에서는 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사회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자 얼마 되지 않아 반한 정서를 조장하는 혐한 서적을 주로 출간하는 우익 출판사인 야마노샤린(山野車輪)이 2005년 만화혐한류(マンガ嫌韓流)를 출간하였다. 출간 1주일 만에 20만부가 판매된 이 책은 실제 한류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식 공격 등을 다루며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드러냈다. 일본 내 혐한류의 양상에 대해 연구한 한영균(2013, 2022)²⁰⁾은 일본 내 ‘혐한’ 감정은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패전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18) 고길희, 「일본의 '한류'와 '혐한류'로 본 한일관계 -'다원화 내셔널리즘'을 모색하며-」, 『일본근대학연구』, 제17권,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77-92쪽.

19) 김은영, 「한류의 SWOT 분석과 한국영화의 아시아시장 확대 방안 연구」, 『영화연구』, 제27권, 한국영화학회, 2005, 89-110쪽.
박상현, 「한류의 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ceri 엔터테인먼트연구』, 제7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연구원, 2007, 73-86쪽.
연기영·김창규, 「한류의 확산과 한국문화산업관계법의 과제」, 『한양법학』, 제21권, 한양법학회, 2007, 57-97쪽.

20) 한영균, 「일본 내 '혐한류' 현상의 실체」, 『일본문화연구』, 제48권, 동아시아일본학회, 2013, 433-456쪽.
한영균, 「일본 내 '혐한류'의 전개와 현황」, 343-368쪽.

일본 사회 기저에 깔린 정서라고 설명하며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의 문화산업이 월등히 발전하고 그 경제적 파급력이 일종이 위협으로 느껴질 때마다 일본 내 비주류 우익 단체는 한국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확산시켰고 이는 ‘혐한류’라는 이름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2010년 일본 내 케이팝(K-Pop)의 인기가 높아지자 재일코리안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소녀시대, Kara 등의 앨범을 대량 구매하고 시청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²¹⁾

2010년 이후의 일본 내 혐한류 양상은 가두시위와 같은 형태로 다소 적극적이며 가시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민영방송국인 후지테레비 앞에서 한국 드라마 편성 비중이 높은 것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2011년 수차례 일어났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혐한 감정이 고조되자 2채널, 재특회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보수우익단체들이 인터넷상에 혐한 관련 콘텐츠를 확산시켰다.²²⁾ 이에 대해 강기철(2020)²³⁾은 일본 내 혐한현상은 한국 식민지 역사관을 배경으로 한 ‘한국멸시론’과 일본 사회 내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장기 경기침체와 저출산으로 비롯된 일본 사회 내 내셔널리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한다.

반면 중국의 반한류 양상은 일본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2005년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자 방송관계자와 연예계를 중심으로 ‘한류’에 의해 잠식 당한 자국의 문화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한류’에 대항하자는 취지에서 항

21) 한영균, 「일본 내 ‘혐한류’의 전개와 현황」, 352쪽.

22) 강기철, 「일본 혐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일본문화학보』, 제85권, 한국일본문화학회, 2020, 15쪽.

23) 위의 논문, 5-27쪽.

한류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형(2012)²⁴⁾은 향한류 정서가 점차 일반 대중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일방적인 한류 콘텐츠의 전파로 인한 저항심리의 축적, 둘째, 한국 방송콘텐츠 및 한국 연예인들의 가격 상승, 셋째, 한류의 지나친 상업주의, 넷째, 중국 내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경각심, 마지막으로 다섯째, 한국 내 중국 관련 왜곡된 기사가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을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내 향한류 움직임에 관한 가장 최근의 분석인 윤경우(2022)²⁵⁾의 연구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권력 강화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해외 문화콘텐츠 상품에 철저한 규제를 동원하는 것이 향한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5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외화 콘텐츠가 30%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 시행과 2018년 국가방송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을 개설해 더욱 강화된 외국 콘텐츠 규제 방침이 발표하였다. 2021년에는 정부가 팬덤 문화 정화를 내세운 소위 ‘정풍운동’에 나서 아이돌 팬클럽들의 15만 건 이상의 글, 사진, 영상을 삭제 및 소셜 네트워크 계정 4천여 개를 폐쇄 및 정지시켰다. 연구자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정치, 문화적 패권을 누려온 중화사상과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게 당한 역사적 굴욕에서 비롯된 피해의식과 시진핑 정부의 장기집권 및 강대국의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의 초조함이 한데 섞인 태도라고 지적한다.

종합하자면 일본과 중국에서의 반한류는 결국 일부 국민들의 반한 정서가 반한류 태도로 표출되는 것이고 주로 양국의 외교적, 문

24) 이주형, 앞의 논문, 235-262쪽.

25) 윤경우, 앞의 논문, 47-85쪽.

화적 갈등이 있을 경우 반한 정서가 더욱 표출되며 이는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산, 유포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²⁶⁾ 반면, 일본의 혐한류 움직임은 소수 비주류의 극우집단에서 주도되는 반면 중국의 항한류는 정부 차원에서 유도된다는 점과 일본의 혐한류는 인종차별주의와 배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중국의 항한류는 중화사상에 기반한 우월적 문화민족주의와 문화자존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²⁷⁾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제3국에서의 반한류에 관한 연구는 반한류 연구 중 매우 소수를 차지한다. 이윤경(2009)²⁸⁾의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태국의 반한류는 일방적인 한류 콘텐츠의 수입으로 인한 문화적 자존감의 손상이 원인이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한류 콘텐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과한 팬덤 활동 또는 성형 조장 풍조에 대한 우려가 반한류의 정서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 모두 한류 콘텐츠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반한류 정서를 조장하기보다는 한류 수용 국가 내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식이 발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리핀 내 한류 수용 특징을 연구한 허윤정(2016)²⁹⁾은 한류 콘텐츠 자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기성세대의 자국 문화 보호의식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탈선에 대한 우려가 반한류의 원인이며 특히 한국 유학생의 탈선, 일부 한국 연예인의 필리핀 비하 발언 등 한류 콘텐츠와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 반한류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26) 김은준·김수정, 앞의 논문, 810쪽.

27) 위의 논문, 810쪽.

28) 이윤경, 앞의 보고서, 8쪽.

29) 허윤정 외, 앞의 논문, 167쪽.

대만인의 한류에 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한 곽추문(郭秋雯)(2018)³⁰⁾의 연구에서는 대만인의 반한류 인식은 주로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한국, 또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반한과 반한류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된 반한감정의 원인은 한국의 단교와 대만인의 열등감, 질투, 스포츠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경쟁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의 반한류 담론을 분석한 김수정(2016)은 양국모두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대중문화를 열성적으로 보시하는 젊은 팬들에 대한 비판에서 반한류 정서가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한류 콘텐츠의 정서가 상충된다는 측면에서의 우려인 반면 베트남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의 반한류는 타 한류 수용국가에 비해 한국 드라마의 진부함과 비현실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동남아시아의 반한류는 한류 콘텐츠의 내용 자체와 자국 내 콘텐츠 수용자(소비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것이지 한국과의 역사적, 정치적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혔다.³¹⁾

마지막으로 중동 6개국(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터키, 이스라엘)의 한류 수용 특징에 관해 분석한 오대영(2014)³²⁾은 중동 언론내 한류에 비판적인 기사 자체는 매우 적었지

30) 郭秋雯, 「한류의 대만 진출 역사 및 대만인의 한류 인식」, 『디아스포라연구』, 제12권(제1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8, 101쪽.

31) 김수정·김은준, 앞의 논문, 39쪽.

32) 오대영, 「중동 6 개국 언론 보도에 나타난 중동 한류: 현상, 성공이유, 성공효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34권, 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69-205쪽.

만, 한류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는 한류스타의 자살, 케이팝 양성 과정에 대한 논란, 케이팝 콘텐츠의 진부함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반한류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반한류의 원인은 한국과 한류 수용국가의 관계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었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국의 문화적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배외주의와 같은 이념을 기반으로 한류 콘텐츠 자체보다는 한국,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형태의 반한류이다. 이러한 반한류 움직임은 주로 한국과 한류 콘텐츠 수용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이 있는 경우 한류 콘텐츠, 또는 한국의 연예인을 비난의 수단으로 삼아 한류 콘텐츠를 규제, 억압, 비판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둘째,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경각심으로 인해 반한류 정서가 촉발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한류 콘텐츠를 규제, 억압하는 방식으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몽골³³⁾, 인도네시아³⁴⁾, 일본³⁵⁾과 같이 일방적인 한류 콘텐츠 수용에 대해 대중, 또는 일본의 경우 일부 우익 단체들이 문화적 자존심을 거론하는 형태로 발현되기도 한다.

셋째, 이종 문화의 유입 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사회 내 갈등의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젊은층의 과도한 팬덤 문화는 거의 모든 한류 수용국가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공통적으로 표출되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이 특정 종교가 우세한 문화권에서는 자국의 종교적 가치와 충돌되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감

33) 광민경, 앞의 논문, 271-298쪽.

34) 김수정·김은준, 앞의 논문, 1-50쪽.

35) 한영균, 「일본 내 '협한류' 현상의 실체」, 앞의 논문, 433-456쪽.

이 표출된다.

넷째, 한국의 문화우월주의적 태도, 지나친 상업주의, 한류 콘텐츠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판으로 반한류 기류가 형성되기도 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진부함과 막장 드라마의 선정성, 소재의 빈약함 등을 비판하는 언론이 대중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2. LDA 기반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연구 동향 분석

토픽모델링은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서(document)를 구성하는 단어(word)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토픽을 도출하는 확률 기반의 분석 모형이다.³⁶⁾ 텍스트마이닝 분야의 한 방법론인 토픽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발견하는데 의의가 있다.³⁷⁾

토픽모델링 기법에 많이 쓰이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Blei, Ng과 Jordan³⁸⁾이 소개한 방법으로써 문서들은 토픽들로 구성된 집합이고, 단어는 토픽의 속성이라고 가정을 한다. 따라서 문서를 구성하는 토픽의 확률 분포와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확률 분포를 확률적으로 추정해 결과적으로 특정한 토픽에 해당하는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군집화해 연

36) 원용국·김영우,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한국 영어교육 학술지에 나타난 연구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51쪽.

37) 양연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 및 경향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35권(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165쪽.

38) D. M. Blei, A. Y. Ng, & M.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Vol.3, 2003, p.993-1022.

구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의 토픽 수를 선정하고 해당 토픽 내 키워드 조합을 기반으로 토픽의 주제를 명명할 수 있게 도와준다. 토픽모델링은 이렇듯 문서 내 내재된 주제들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특정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³⁹⁾

한류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에 빅데이터 분석법을 적용한 사례는 소수 있다. 홍석경 외 2인(2017)⁴⁰⁾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류 관련 학술논문 666건을 대상으로 저자, 저널, 출판연도, 키워드 등의 데이터를 추출해 지식연결망 분석을 시도했고, 오지민과 이수범(2021)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케이팝 관련 연구 392편을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과 CONCOR분석(군집분석)을 적용해 케이팝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권진주(2023)⁴¹⁾는 케이팝 관련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행된 학술 논문 중 제목, 초록과 저자 키워드에 'K-Pop'이 포함된 학술 논문 149편을 대상으로 논문 발행 동향, 키워드 빈도분석, 연도별 주요 키워드 현황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앞의 언급한 연구들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한류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한류 관련 국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반한류 관련 연구의 거시적인 토픽

39) 원용국·김영우, 앞의 논문, 52쪽.

40) 홍석경 외, 「한류연구의 지식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61권(제6호), 한국언론학회, 2017, 318-353쪽.

41) 권진주, 「키워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케이팝(K-Pop) 해외 연구 동향 분석」, 『인문콘텐츠』, 제68권, 인문콘텐츠학회, 2023, 437-460쪽.

분류와 비중을 파악하고 시기별 주요 토픽의 변화 여부를 살펴봄과 동시에 향후 반한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반한류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에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학술 논문 중 제목, 초록, 주제어 부분에서 ‘반한류, 혐한류, 항한류, 반한감정, 반한국’이 포함된 학술논문 58편을 수집하였고, 직접 초록을 읽어보며 반한류와 관련성이 적은 논문 및 중복된 논문을 제거해 총 53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어(저자 키워드)와 논문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담긴 초록의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제어와 초록이 영문 또는 일어로만 기재된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입력하였다.

2. 분석 절차

형태소 분석을 위해 띄어쓰기와 상관없이 사전에 따라 어휘를 구분하는 장점을 지닌⁴²⁾ Mecab 프로그램이 장착이 된 의미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 4.5.0을 활용해 명사를 추출하여 1차

42)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트툼 블로그]

<https://blog.naver.com/textom/220931418388>, (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적으로 단어빈도(TF, Term Frequency)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위 빈도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분석의 정확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 의존명사(예: 대한), 일반 명사이지만 분석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단어(예: 관련) 등과 일반적으로 초록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반 명사(예: 연구, 분석, 결과, 요인, 제시)를 제거한 뒤 다시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키워드를 정제하는 과정을 5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Mecab이 복합명사 추출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복합명사 추출에 탁월한 Espresso K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연구자가 놓친 주요 복합명사 키워드가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주요 키워드를 Netminer 상에서 지정어로 설정하여 추가하였다(예: 문화 + 콘텐츠 = 문화콘텐츠, 대중+문화 = 대중문화 등).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Netminer 4.5.0을 활용해 단어빈도(TF)와 특정 단어의 실질적인 중요도를 의미하는 빈도의 가중치(TF-IDF)를 측정하여 상위 50개의 키워드를 선별해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해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토픽 분석을 위해서는 LDA 알고리즘을 적용한 토픽모델링 플러그인을 활용해 Netminer 4.5.0에서 토픽모델링을 실시했다. 토픽의 타당성, 유용성을 기준으로 반한류와 관련된 주요 토픽을 4개로 설정하고 연도별 관련 토픽을 다룬 논문 수를 분석해 시기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토픽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토픽별 주제어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데이터 분석 절차 및 활용 프로그램

단계	작업 내용	활용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내 제목, 초록, 저자키워드에 '반한류'를 포함하는 학술 논문 수집 (2000-2023)	Excel
데이터 정제	형태소 분석을 통한 명사 추출 및 교정, 통제, 제거	Mecab (Netminer), Espresso K (Textom)
데이터 분석	TF, TF-IDF 분석	Netminer 4.5.0
	LDA 기반 토픽 분석	
데이터 시각화	워드클라우드, 토픽연결망	

IV. 연구 결과

1. 반한류 관련 연도별 연구 추이

‘반한류’ 관련 주제어가 논문의 저자 키워드, 제목, 또는 초록에 포함되었던 첫 사례는 2005년⁴³⁾이다. 이를 시작으로 [그림 1]과 같이 2007년 5편, 2010년 0편 등 들쭉날쭉한 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연간 최대 편수인 10편이 발행되었고 이후 한 두 편의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5년은 일본에서는 만화협한류가 출간되고 아마존 재팬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협한류’가 국내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된 해⁴⁴⁾이고, 중국에서는 대장금의 열풍으로 중화권 연예계에서 한류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해이다.⁴⁵⁾ 2014년에 반한류 관련 논문들이 갑작스럽게 급증한 원인을

43) 김은영, 앞의 논문, 89-110쪽.

44) 한영균, 「일본 내 ‘협한류’의 전개와 현황」, 3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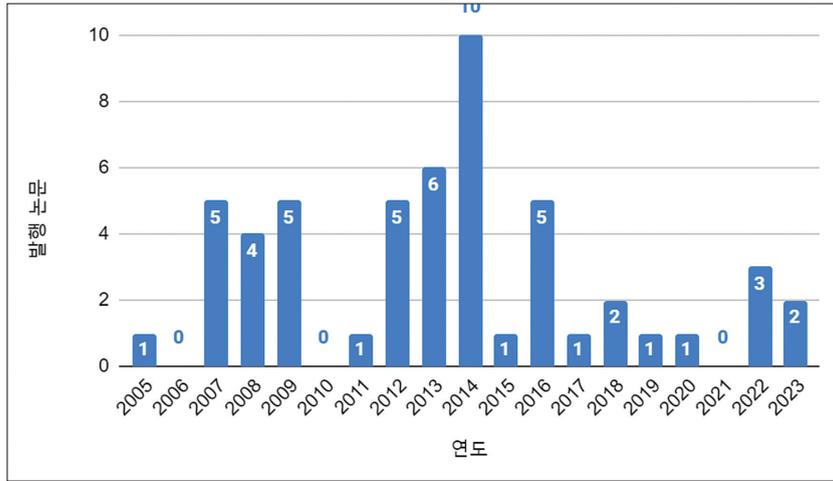
45) 윤경우, 앞의 논문, 68쪽.

추측해보건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 발언을 계기로 일본 내 혐한류 기류가 고조되었고, 헤이트스피치를 동반한 우익 단체의 시위와 집회는 2012년부터 237건을 시작으로 2014년 378건에 이르기까지 매해 증가했다.⁴⁶⁾ 중국의 경우, 2014년은 <별에서 온 그대>가 20억 뷰를 넘는 시청 기록을 세우며 한류 열풍의 정점을 찍은 해이지만, 중국 정부는 과열된 한류 콘텐츠 인기를 저지하고자 2015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방영되는 해외 드라마와 영화의 편수를 전체 동영상의 30%로 제한하고 사전심의를 실시한다는 규제안을 발표했다.⁴⁷⁾ 하지만 2014년 발간된 반한류 관련 논문 10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단 일본(3편)과 중국(2편)에서의 반한류를 다룬 논문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몽골(1편), 중동(1편)에서의 반한류 현상을 다루거나, 특정한 국가 내 반한류가 아닌 일반적인 한류의 움직임을 분석한 2편의 연구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반한류 움직임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2014년의 반한류 관련 논문의 급증은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성공 이후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축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⁴⁸⁾ 한류 현상의 전반적인 점검 차원에서 반한류 현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46) 한영균, 「일본 내 '혐한류'의 전개와 현황」, 354쪽.

4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4 한류백서」, 2015, 3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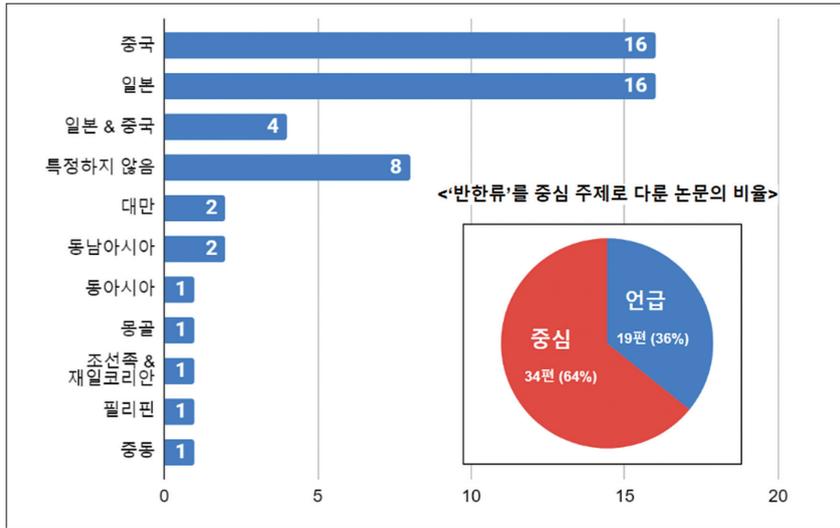
48) 오인규, 「한류 3.0과 문화 글로벌화의 인문학적 연구」, 『인문정책연구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7쪽.



[그림 1] 연도별 반한류 관련 논문 발행 수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반한류’ 관련 논문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언급한 국가들과 해당 국가 내의 반한류 정서를 분석한 논문 편수는 [그림 2]와 같다. 중국 내 반한류 현상에 대한 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일본 15편, 일본과 중국 내 반한류 정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 4편과, 특정 국가 내 반한류 정서가 아닌, 전반적인 한류 현상의 반대급부로서의 반한류 현상을 조망한 연구가 8편, 그 외에 대만,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필리핀 등 제3국가에서의 반한류를 분석한 연구들은 2편 내지 1편으로 극소수였다.

총 53편의 분석 대상 논문 중 ‘반한류’의 원인 및 현황 분석처럼 반한류를 연구의 중심 주제로 삼은 논문은 총 33편(63.5%)이고, 한류 흐름 개괄 및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대책 연구와 같이 반한류가 중심 주제라기 보다는 언급된 수준에 그치는 논문은 19편(36.5%)이었다.



[그림 2] '반한류' 관련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와 관련 논문 수

2. 반한류 관련 주요 키워드

반한류 관련 국내 연구의 저자 주제어와 제목, 초록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는 총 1,413개로 이중 단어의 출현 빈도(TF)에 기반한 상위 50개의 키워드와 특정 단어의 가중치를 고려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⁴⁹⁾에 기반한 상위 50개의 키워드 목록은 아래 <표 2>와 같다.

49) TF-IDF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포함한 단순 빈도 분석이 아닌 전체 문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표 2〉 ‘반한류’ 관련 국내 연구의 주요 키워드 상위 50개
(TF와 TF-IDF 기준)

순위	키워드	TF	키워드	TF-IDF
1	한류	359	중국	86.41285
2	문화	202	대만	66.04863
3	한국	167	일본	65.94371
4	중국	125	협한	53.9564
5	반한류	102	재특회	52.43432
6	일본	82	반한류	47.80394
7	혐한류	61	중동	47.6435
8	콘텐츠	55	문화	47.50066
9	인식	49	한국	45.91339
10	사회	41	언론	45.5995
11	국가	40	콘텐츠	43.96247
12	역사	38	코리아타운	43.67321
13	드라마	38	문화외교	42.60288
14	갈등	36	모국	42.60288
15	언론	35	인터넷	41.26827
16	확산	34	한일	40.88231
17	우익	34	넷우익	40.20351
18	양국	33	한류	39.28719
19	정책	32	젊은이	38.75996
20	인터넷	32	인식	37.95655
21	수용	31	열풍	36.43887
22	문제	30	이미지	36.43887
23	감정	30	원인	35.64925
24	정부	29	수용	35.13356
25	필요	27	갈등	34.16386
26	원인	27	확산	33.47752
27	영향	27	필리핀	32.77145
28	상품	26	정부	32.32288

29	대만	26	드라마	31.47616
30	교류	26	역사	31.31768
31	협한	24	양국	31.18591
32	지속	23	감정	29.51219
33	정치	23	조선족	29.4943
34	영화	23	제고	29.4943
35	이해	22	만화	28.42397
36	상호	21	성공	28.34134
37	보수	21	반감	28.34134
38	미디어	20	보수	28.33025
39	대중문화	20	영화	28.30314
40	재일코리아	19	몽골	27.79204
41	이미지	19	보수우익	27.79204
42	열풍	19	사회	27.28767
43	외교	18	다양	26.73693
44	경제	18	대중문화	26.70151
45	전략	17	문화산업	26.59601
46	문화산업	17	차이	26.47191
47	아시아	16	성향	26.21716
48	성공	16	영향	26.15281
49	부정	16	한국문화	25.96939
50	확대	15	한중	25.83998

단순 단어빈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빈도로 언급된 키워드는 ‘한류’이고 이어 ‘문화, 한국, 중국, 반한류, 일본, 협한류, 콘텐츠, 인식, 사회’ 순서로 나타난다. 반면, 빈도가중치를 고려한 중요도 순서로 보면 ‘중국, 대만, 일본’이라는 국가명이 순서대로 나열되고 이후 ‘협한, 재특회, 반한류, 중동, 문화, 한국, 언론’ 순으로 언급되어 TF와 TF-IDF 순위가 다소 다르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TF와 TF-IDF의 상위 50개 단어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비교한 [그

2. 토픽 분석

1) 국내 ‘반한류’ 관련 연구의 유형 분류

‘반한류’ 관련 국내 연구 총 53편의 제목, 초록과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법을 활용해 토픽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주요 토픽과 각 토픽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토픽 개수와 관련하여 최적의 수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토픽 해석 가능성과 연구 문제에 기반한 토픽의 유용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자의 판단하에 결정하였다.⁵²⁾ 이어서 각 토픽의 주제를 명명하기 위해 해당 토픽으로 연결될 확률이 상위인 키워드들과 각 토픽으로 분류될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토픽의 주제명을 결정하였다. 토픽 명과 주요 각 토픽별 키워드, 토픽에 해당하는 논문 수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토픽 분석 결과와 토픽별 논문 수

	1st 키워드	2nd 키워드	3rd 키워드	4th 키워드	5th 키워드	논문 수
일본의 반한류	일본	협한류	사회	우익	인터넷	16
문화갈등과 반한류	문화	반한류	한류	갈등	원인	12
역사적 차원의 반한류	한국	인식	양국	역사	정부	8
중국의 반한류	한류	중국	콘텐츠	한국	드라마	17

52) 박선영·이재림, 「소셜 빅데이터로 알아본 코로나 19와 가족생활: 토픽모델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제3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287쪽.

‘토픽 1’의 핵심 키워드는 일본, 혐한류, 사회, 우익, 인터넷이 등장한다. 이는 일본 내 ‘혐한류’ 정서에 대한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다룬 연구의 경향을 나타내며 일본 사회 내 소위 ‘넷우익’ 또는 ‘재특회’로 불리는 비주류의 민족주의 단체가 반한·반중의 배외주의적 게시글이 가득한 2ch(2채널)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어떻게 ‘협한’ 정서를 촉매하고 확산시키는지 분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토픽 1은 ‘일본의 반한류’라고 명명하였고, 이러한 연구 경향을 보이는 논문 수는 16편으로 전체 연구 중 30% 가량을 차지한다.

‘토픽 2’의 상위권 키워드는 문화, 반한류, 한류, 갈등, 원인 등의 키워드이며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이 높은 문서들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반한류’ 현상에 대해 일종의 ‘문화갈등’ 현상으로서 반한류 현상을 조망하는 연구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문화갈등과 반한류’라고 명명하였다. 일본의 혐한류는 ‘전후 일본’이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 경제, 문화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보는 시각⁵³⁾이라든지 또는 한류 콘텐츠를 문화 운반자(cultural carrier)로 보고 특정 문화의 요소가 공간적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문화접변 현상의 일환으로 중국 내 ‘항한류’를 보는 시각 등이 문화갈등 현상으로서의 반한류 연구에 해당된다.⁵⁴⁾

‘토픽 3’의 주요 키워드는 한국, 인식, 양국, 역사, 정부로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이 높은 문서들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역사적 갈등 관계가 첨예한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류 수용국

53) 한정선, 「조경수역에서 표류하는 일본: 한류와 혐한류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사회」, 『동북아역사논총』, 제21권, 동북아역사재단, 2008, 361쪽.

54) 윤경우, 앞의 논문, 62쪽.

의 시각으로 분석한 한류의 의미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 경향을 드러낸다. 이를 ‘역사적 차원의 반한류’ 연구로 명명하였다. 한류 발신자 중심의 연구가 아닌 한류의 수신자의 시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역사적 갈등과 갈등 사안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탕으로 반한류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연구하는 부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4’의 상위 키워드는 한류, 중국, 콘텐츠, 한국, 드라마 등이며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이 높은 문서들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중국 내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가 어떻게 수용되고 저항에 부딪히는지를 분석한 연구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토픽 4는 ‘중국의 반한류’로 명명하였다. ‘항한류’로 명명되는 중국 내 반한류 정서는 일본 사회 기저에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자리 잡은 혐한 정서의 사회적 표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항한류의 시작이 2005년 대장금의 중국 내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항한류 배경에는 자국 문화산업 보호 논리가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낸다.⁵⁵⁾ 또한 중국 정부가 지닌 한국의 콘텐츠를 향한 동경과 문화적 우월감에 기반한 시기심, 문화강국 실현의 초조함 등의⁵⁶⁾ 복잡한 정서 역시 타국의 반한류와는 구별되는 중국의 반한류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반한류 정서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의 경향이 토픽 4에 해당한다.

55) 이주형, 앞의 논문, 244쪽.

윤경우, 앞의 논문, 68쪽.

황낙건, 「반(反) 한류 정책이 중국 내 한류에 미치는 영향: 한국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2권(제6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8, 235-248쪽.

56) 윤경우, 앞의 논문, 77쪽.

2) 국내 '반한류' 관련 연구의 토픽별 비중 및 연도별 연구 경향

토픽별 논문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중국의 반한류 연구가 3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일본의 반한류 연구 30.2%, 문화갈등과 반한류 22.6%, 역사적 차원의 반한류는 15.1%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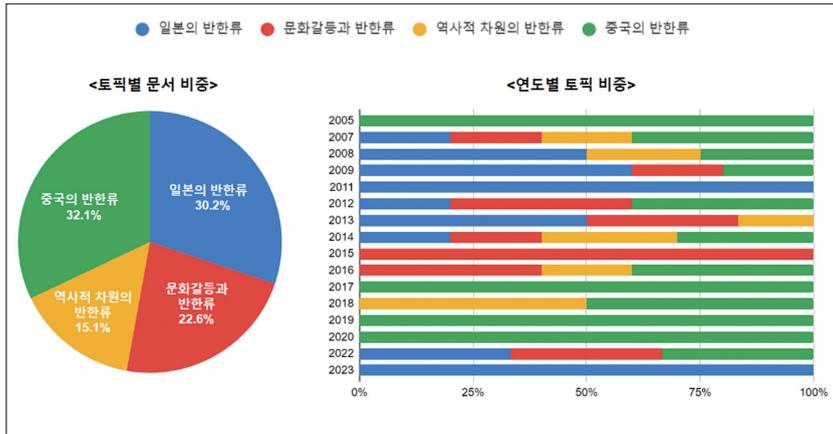
연도별로 각 토픽에 해당하는 연구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내 혐한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지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토픽에 관한 연구가 뜸하다 2022년부터 다시 일본 내 반한류에 관한 연구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혐한류'라는 용어가 일본 사회에 2004년 등장⁵⁷⁾한 후 2010년 이후 반한 정서가 더욱 고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10년 재특회는 교토제일조선초급학교 앞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동반한 과격 시위를 벌였고, 2011년도교의 후지TV 앞에는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천명의 시민들이 한국 드라마 편성률이 높음을 비판하는, 소위 반한류 정서를 사회적으로 표출한 시위가 행해졌다.⁵⁸⁾ 이후 2022과 2023년에 등장한 일본 내 혐한류 관련 연구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다문화 공생을 위한 혐한 정서 극복 방안과 일본 대학생들의 혐한과 한류에 대한 인식 분석에 관한 것으로 즉, 과거 혐한류의 원인과 전개 양상 분석과는 다소 주제가 다른 현대 일본 사회 내 혐한 정서를 점검하는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토픽 비중 변화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57) 김수정·김은준, 앞의 논문, 804쪽.

58) 황성빈, 앞의 논문, 125쪽.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모든 토픽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들이 두루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에 발행된 논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의 반한류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긴 하나, 대만, 중동,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내의 한류 수용 현상의 ‘일부’로서 반한류 현상을 조명한 연구들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한류 수용국에 관한 연구 대상이 널리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토픽별 문서 비중과 연도별 토픽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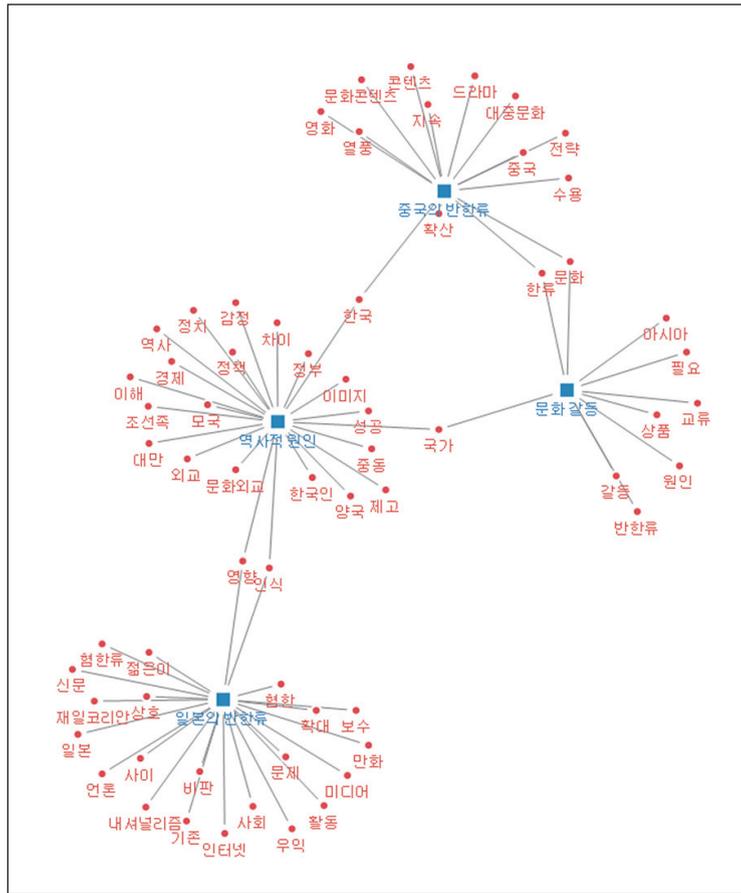
3) 국내 ‘반한류’ 관련 연구의 토픽 간 네트워크 분석

반한류 관련 국내 연구의 저자 주제어와 제목, 초록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중 단어의 출현 빈도(TF)에 기반한 상위 7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해당 키워드가 어떤 토픽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기준으로 토픽 네트워크를 형성한 결과 [그림 5]와 같은 시각화된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반한류’와 관련된 연구는 ‘역사적 차원으로서의 반한류’

와 ‘문화갈등과 반한류’ 관련 연구들과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매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반한류’ 관련 연구는 ‘역사적 차원의 반한류’ 연구와 연계된 반면 문화갈등으로서의 반한류와는 연계성이 없음을 통해, 일본의 반한류 정서는 역사적 갈등에 뿌리 깊게 기반한 정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각 토픽별 대표 키워드 5가지 외에도 다양한 상위 주제어들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으로는 첫째, ‘중국의 반한류’ 연구와 연계된 문화콘텐츠, 대중문화, 열풍과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중국의 반한류 현상이 한국 콘텐츠의 열풍과 함께 시작된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규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역사적 차원으로의 반한류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상위 키워드 5개 이외에도 모국, 정치, 감정, 문화외교, 이해 등의 키워드를 통해 한류 수용국들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문화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문화갈등 측면으로서의 반한류’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품, 교류, 갈등, 원인, 아시아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문화적 상품으로서의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 한류 수용국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 시 갈등이 생성되는 원인에 주목해 향후 지속적인 한류 발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일본의 반한류에 관한 연구’의 연계 키워드에 내셔널리즘, 미디어, 인터넷, 만화(만화협한류를 뜻함), 신문, 언론이 등장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즉, 2000년대 이후 인터넷 통신 발달로 인해 일부 우익 세력들의 배외주의, 민족주의 감정이 인터넷 상에서 폭발적으로 표출됨으로써 일본 내 혐한 정서가 촉매되었고 이 과정에서 언론과 미디어가 막중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반한류' 관련 연구의 토픽 간 네트워크
(상위 빈도 70개 기준)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반한류'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학술연구재단 RISS 내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반한류' 관련 학술논문 총 53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제목, 초록, 저자키워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는 키워드 빈도 분석, 그리고 토픽모델링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반한류 관련 연구는 2005년 1편을 시작으로 2007년 5편, 2010년 0편 등 일정치 않은 추이를 보이다 2014년 연간 최대 편수인 10편이 발행되었고 이후 2023년까지 한두 편의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이는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성공 이후 한류 정체기 속에서 한류의 전반적인 점검 차원에서 일본과 중국 이외에도 몽골,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한류와 반한류 현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반한류 관련 연구에서 중국과 일본 내 반한류에 관한 분석을 다룬 논문은 각각 16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일본과 중국을 함께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 4편,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반한류의 특징을 연구한 논문 8편, 그 외의 국가들은 한 두편으로 매우 소수였다. 즉, 반한류 연구의 대상 국가가 중국과 일본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반한류 관련 연구의 제목, 초록, 주제어 텍스트 분석 결과 상위 빈도의 키워드 한류, 문화, 한국, 중국, 반한류, 일본, 혐한류, 콘텐츠, 인식, 사회 등인 반면, 가중치를 고려한 TF-IDF 기준의 상위 빈도 키워드 순위에는 중국, 대만, 일본, 재특회, 넷우익, 중동, 필리핀, 젊은이, 조선족 등과 같이 구체적인 반한류 연구의 대상과 조장 세력, 새롭게 부상하는 키워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LDA 기법을 활용한 토픽 분석 결과 ‘일본의 반한류’, ‘문화갈등과 반한류’, ‘역사적 차원의 반한류’, ‘중국의 반한류’와 같이 총 4개의 토픽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토픽별 논문의 비중으로는 중국의 반한류 연구가 3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 일본의 반한류 연구 30.2%, 문화갈등과 반한류 22.6%, 역사적 차

원의 반한류는 15.1%를 차지했다.

다섯째, 연도별 각 토픽에 해당하는 연구 추이를 보면, 2005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는 일본 내 혐한류 연구가 활발하였고, 이후 2022년까지 관련 연구가 주춤하였다. 이는 2004년 ‘만화혐한류’의 출간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해 네티즌, 재특회 등의 민족주의 성향의 비주류 극우 단체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 이후 각종 시위와 같은 형태로 오프라인 상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던 시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다양한 토픽을 아우르는 연구들이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는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대만, 중동,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류 수용국에 관한 연구 대상이 확대된 시기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토픽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한 결과 중국의 반한류와 관련된 연구는 역사적 차원으로서의 반한류, 문화갈등과 반한류 연구와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매개되어 있으나, 일본의 반한류 관련 연구는 역사적 차원의 반한류 연구와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일본의 반한류 현상은 역사적 갈등에 뿌리 깊게 기반한 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한류 현상의 연구 대상 국가가 좀 더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반한류’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국가 내 한류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반한류 연구의 대상국은 일본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다수로 차지하고 있다. 일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내의 반한류 현상을 논의한 연구가 있지만 한 두편에 그치며, 이마저도 아

시아에 치중되어 중남미와 북미, 유럽 등의 국가에서의 반한류 정서에 관한 연구는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반한류에 대한 공감도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⁵⁹⁾ 실제로 한류에 관한 연구 조차도 여전히 아시아 국가 위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⁶⁰⁾, 반한류 연구 대상 국가 범위를 더욱 확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반한류 관련 연구는 대부분 국가 간 정치, 경제,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반한 정서’가 한류 현상에 대한 비판을 수단으로 삼아 반한 감정이 확산되는 형태로서 반한류 현상을 해석하고 있다. 즉,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한류 콘텐츠 자체로 촉발되는 반한류 정서는 극히 일부이며, 이는 주로 타 문화 수용 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 사회 가치관의 충돌과 같이 특별히 우려하지 않을 수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예능, 뮤직비디오, 영화와 같은 다양한 한류 콘텐츠 속에서 베트남, 수리남, 모로코, 인도 등 다양한 한류 수용국가와의 외교적 갈등을 빚는 소재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반한 정서에 기반한 반한류 연구와는 접근 방법이 다른 ‘한류 콘텐츠가 촉발하는 반한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적은 수의 논문을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한계와 함께 ‘반한류’ 관련 언론 기사 분석을 함께 수행했다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 동향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지닌다. 그럼에도 기존에 시도되지

59)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앞의 글, 269쪽.

60) 권진주, 앞의 논문, 20쪽.

않았던 반한류 연구 동향 분석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반한류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나아가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반한류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도서출판 청람, 2018.

□ 참고논문

- 강기철, 「일본 혐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일본문화학보』, 제85권, 한국일본문화학회, 2020, 5-27쪽.
- 고길희, 「일본의 '한류'와 '혐한류'로 본 한일관계 -'다원화 내셔널리즘'을 모색하며-」, 『일본근대학연구』, 제17권,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77-92쪽.
- 곽민경, 「몽골의 반한류 네트워크 분석-미디어, 소셜, 정부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을 중심으로」, 『몽골학』, 제39권, 한국몽골학회, 2014, 271-298쪽.
- 권진주, 「키워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케이팝(K-Pop) 해외 연구 동향 분석」, 『인문콘텐츠』, 제68권, 인문콘텐츠학회, 2023, 437-460쪽.
- 김수정·김은준, 「동남아시아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제3호), 한국동남아학회, 2016, 1-50쪽.
- 김은영, 「한류의 SWOT 분석과 한국영화의 아시아시장 확대 방안 연구」, 『영화연구』, 제27권, 한국영화학회, 2005, 89-110쪽.
- 김은준·김수정, 「일본과 중국 언론인들의 반한류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제6호), 한국콘텐츠학회, 2016, 802-813쪽.
- 박상현, 「한류의 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ceri 엔터테인먼트연구』, 제7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연구원, 2007, 73-86쪽.
- 박선영·이재림, 「소셜 빅데이터로 알아본 코로나 19와 가족생활: 토픽모델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제3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282-300쪽.
- 양연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 및 경향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35권(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159-188쪽.
- 연기영·김창규, 「한류의 확산과 한국문화산업관계법의 과제」, 『한양법학』, 제21권, 한양법학회, 2007, 57-97쪽.
- 오대영, 「중동 6 개국 언론 보도에 나타난 중동 한류: 현상, 성공이유, 성공효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34권, 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69-205쪽.
- 윤경우,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동북아역사논총』, 제76권, 동북아역사재단, 2022, 47-85쪽.
- 원용국·김영우,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한국 영어교육 학술지에 나타난 연구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50-59쪽.
- 이주형, 「중국에서의 반한류(反韓流) 현상에 대한 연구」, 『외국학연구』, 제21권,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2, 235-262쪽.
- 임학순·채경진, 「우리나라 한류연구의 경향 분석」, 『한류비즈니스연구』, 제1권(제1호),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한류지식센터, 2014, 31-47쪽.
- 주정민,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한류'현상의 원인과 대응: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제2호),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3, 137-160쪽.
- 한영균, 「일본 내 '혐한류' 현상의 실제」, 『일본문화연구』, 제48권, 동아시아일본학회, 2013,

433-456쪽.

- _____, 「일본 내 '혐한류'의 전개와 현황」, 『일본문화연구』, 제82권, 동아시아일본학회, 2022, 343-368쪽.
- 한정선, 「조경수역에서 표류하는 일본: 한류와 혐한류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사회」, 『동북아역사논총』, 제21권, 동북아역사재단, 2008, 361-384쪽.
- 황낙건, 「반(反) 한류 정책이 중국 내 한류에 미치는 영향: 한국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2권(제6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8, 235-248쪽.
- 황성빈, 「넷우익과 반한류, 배외주의의 여론: 주요 언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10권,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 2014, 124-163쪽.
- 허윤정 외, 「필리핀의 한류수용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2016, 153-169쪽.
- 홍석경 외, 「한류연구의 지식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61권(제6호), 한국언론학회, 2017, 318-353쪽.
- 郭秋雯, 「한류의 대만 진출 역사 및 대만인의 한류 인식」, 『디아스포라연구』, 제12권(제1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8, 83-111쪽.

D. M. Blei, A. Y. Ng, &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Vol.3, 2003, p.993-1022.

□ 기타자료

- 오인규, 「한류 3.0과 문화 글로벌화의 인문학적 연구」, 『인문정책연구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 이윤경, 「반한류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2009.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4 한류백서」, 2015.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5 해외한류실태조사보고서」, 2016.
- 양승준, 「"한국군 1명이 베트남 100명 죽여"...'분노 유발자' 된 K콘텐츠」, 『한국일보』, 2022년 10월 11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 _____, 「역린 건드린 K드라마·예능, 떨어진 수출... 미운털 박힌 이유」, 『한국일보』, 2023년 4월 24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 정주원, 「넷플릭스 톱100중 K콘텐츠 16개... "외국인이 더 즐겨찾네"」, 『매일경제』, 2022년 12월 15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트 톨 블로그]
<https://blog.naver.com/textom/220931418388>, (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ABSTRACT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Anti-Hallyu Using Topic Modeling

Jinju Kwon⁶¹⁾

In order to explore the structure of the anti-hallyu research so far and to seek for the future direction of anti-hallyu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keyword frequency analysis, and topic modeling, based on 53 academic papers from 2005 to 2023 related to anti-hallyu registered in RISS, an academic research foundation.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domestic anti-hallyu-related studies maintained a small number of studies starting with one in 2005, then recorded the highest number of 10 in 2014, and then maintained the trend of one or two until 2023. The main research target countries are China and Japan, and other countries are also focused on Asian countries such as Taiwan, Mongolia, and Vietnam. Second, the top frequency keywords of anti-hallyu-related research were 'Hallyu, culture, Korea, China, Japan, content, perception, society', and 'Taiwan, China, Japan, Jaeteukhoe, Net right, Middle east, Philippines, Youth' are

61) Korea University, Lecturer

listed on TF-IDF high frequency list. Third, as a result of LDA-based topic analysis, studies related to anti-hallyu can be largely divided into 4 topics: 'Anti-hallyu in Japan', 'Cultural Conflict and Anti-hallyu', 'Anti-hallyu in Historical Level', and 'Anti-hallyu in China'. As for the proportion of research on 'anti-hallyu in China'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at 32.1%, followed by research on 'anti-hallyu in Japan', 'cultural conflict and anti-hallyu', and 'anti-hallyu at the historical level'.

Keywords: Anti-Hallyu, Anti-KoreanWave, Anti-Korea Sentiment, Research Trend Analysis, Topic Modeling

권진주

전자우편 : pearl.kwon@gmail.com

논문 접수일 : 05월 27일

심사 완료일 : 06월 18일

게재 확정일 : 06월 21일

한국 시집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 발간 현황

박순원¹⁾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시집이 외국어로 번역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시집 목록을 바탕으로 시기별, 번역어별, 시인과 시집별 현황을 파악하고, 번역시집 목록을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번역시집의 출간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번역어와 출간 국가가 폭넓게 펼쳐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집을 살펴본 결과 근현대 시인으로서 번역시집이 있는 시인은 211명이며 출간 횟수는 421번이었다. 그중 고은이 53번 번역시집을 출간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윤동주가 22번, 김소월이 21번 번역시집을 출간하여 비교적 해외에 많이 알려진 시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 가장 많이 소개된 시집은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서 20번 번역 출간되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고은의 『만인보』은 각각 11번 번역 출간되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시집 목록은 이미 방대한

1) 광주대학교 교수

자료가 활용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에 대해 일부 보충해야 할 부분과 자료 정리를 다소 보완하여 항시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더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번역시집,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시집 목록, 시기별 현황, 시인 및 시집별 현황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시집이 외국어로 번역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 시집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의 해외 번역 현황이 여러 번에 걸쳐 파악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당시의 효용을 감당한 이후 신뢰감 있는 자료로 발전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한 669권에 이르는 번역 시집 목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²⁾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엑셀 파일로 번역시집의 제목, 원제목, 발행국가, 번역어, 저자, 번역자, 발행 연도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³⁾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번역어별, 시인과 시집별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황 파악의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번역시집 목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시집의 외국어 번역 현황을 따로 조사한 사례는 서준섭의 「한국 현대시의 외국어 번역 현황 - 1980년 이후의 시집 번역 점검」이 유일하다.⁴⁾ 이 글은 곽효환이 작성한 「한국문학의 언어권별

2)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이 자료는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였으나, 해외에서의 출판 경로가 다양해져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한다. 오랜 세월 공을 들여 취합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한국문학번역원에 감사드린다.

3) 또한 필드 별로 모든 항목에 필터를 걸어놓아 활용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그러나 발행국 수가 192개가 비어있고, 시론집과 시 해설서 동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활용하는 데는 다소 보정이 필요하였다. 발행국가는 주로 '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에서 서지사항을 확인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기록도 참조하여 대부분 보정하였다. 이외에도 시론집과 시 해설집을 따로 분류하는 문제와 시집과 시선집의 처리 문제 비롯하여 북한에서 활동한 시인, 고전 시가 작품, 국내에서 발간된 경우 등에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자료의 활용은 다각화하면서 자료의 일관성 유지하는 정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대별, 언어별 논의에는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시인과 시집의 논의에서는 고전 시가는 제외하였다. 자료를 보정하고 배제한 사항은 논의 과정에서 각주로 설명하였다.

4) 서준섭, 「한국 현대시의 외국어 번역 현황 - 1980년 이후의 시집 번역 점검」, 『시와시학』, 제71호, 시와시학사, 2008, 63-77쪽. 이외에 개별 국가에서 발행된 시집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다.

김현자, 「프랑스에서 한국시 번역 출판」, 『서정시학』, 제72호, 서정시학, 2016, 62-69쪽.

해외출판 현황」(2007년 12월 말)에 의거 1980년부터 2007년 12월 말에 이르는 27년간의 번역시집 목록을 영어권, 불어권, 독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아시아권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그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⁵⁾

이외의 다른 연구는 대부분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의 일부로 전개되었다. 1980년 『한국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보급 방안』이 1978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서로 제출된다.⁶⁾ ‘현황과 분석’에서는 1978년 한국문예진흥원 자료가 작품 편수로 제시된다. 영역과 불역을 합쳐 132명의 작품 1364편이 번역되었다. ‘한국시의 번역과 소개’에서는 국외 출판 4권, 국내 출판 6권의 영역본 시집을 검토하고, 역자, 시인과 작품 선정, 번역의 문제 등을 논의한다.

1996년에는 대산재단과 연세대학교 번역문학연구소 주최로 ‘한국문학 번역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고, 그 발표와 토론 내용이 이듬해 『한국문학 외국어번역의 현황과 전망』으로 출판된다.⁷⁾ 현대 시

한승희, 「러시아에서의 한국 현대시 소개 과정 연구 - 2000년대에서 2020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69호, 한국시학회, 2022, 207-236쪽.

한편, Chen Yijun의 「박인환 시집 『목마와 숙녀』에 관한 중국어 번역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는 번역상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 주된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논의에 앞서 ‘1993년부터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시(시집) 번역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5) 이 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집 중, 영어권의 최승호, 『변기 속의 꽃』(2004), 최승호 외 3인 시선, 『조개껍질 깨기』(2005), 김혜순 외, 『메아리치는 노래 한국현대여성시선』(2005), 고은, 시선집 『잠에서 깨어나라』(2007), 일본어의 『한국판매금지시집』(1978), 정지용, 『백록담』(2022), 김춘수·고은·김수영, 『한국2인시선』(2007) 등과 서론에서 언급한 영어로 번역되어 일본에서 출판된 김지하의 『민중의 외침과 기타 시편』은 한국문학 번역원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시집들은 서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추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6) 여석기 외, 『한국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보급 방안』, 고려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1980.

7) 김종길 외, 『한국문학 외국어번역의 현황과 전망』, 민음사, 1997.

의 번역에 대해서는 영어권, 불어권, 슬라브권에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번역가 안선재가 신경림의 『목계장터』 번역을 통해 ‘시 번역의 방법론들’을 논의한다.⁸⁾

연세대학교 유럽문화정보센터는 2002년부터 ‘세계 속의 한국문학, 한국문학의 세계화,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및 수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2004년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을 출간한다.⁹⁾ 영어권,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체코어, 중국어, 일본어권 등 예전보다 논의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각 어권 별로 장르와 작가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제시되고 있으며 전망이 제시하고 문제가 되는 점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각 어권 별 작품 목록을 작성하여 부록으로 실고 있다.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에 대한 개별 연구는 곽효환의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연구」¹⁰⁾와 황민선의 「한국 출판물의 해외 소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¹¹⁾를 들 수 있다. 곽효환은 한국 저작물의 해외 소개 현황을 각종 통계를 통해 제시하고,¹²⁾ 영미어권, 불어권, 독일어권, 서반아어권, 러시아 동구 슬라브어권 및 기타 유럽어권, 중국어, 일본어 아시아어권 등으로 나누어 어권 별 특징을 살피고 있다. 또한 문예진흥원, 대산문화재단, 문화관광부 및 한국문학번역금고(현 한국문학번역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기관과 단체 등을

8) 한국문학번역원 자료에 따르면 안선재(Brother Anthony of Taize)는 22권의 시집을 단독 번역하고, 17권의 시집을 공동 번역한다.

9) 봉준수 외,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10) 곽효환,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1) 황민선, 「한국 출판물의 해외 소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회 연구』, 제43호, 한국출판학회, 2001, 353-380쪽.

12)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1996년에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구원 박상원에 의해 조사된 바 있으며 곽효환의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박상원,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연구」, 『문예중앙』, 제19권(제2호), 중앙일보사, 1996, 36-67쪽.

통해 전개되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도 점검하고 있다. 저작권, 번역 출판의 여건 등 그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살피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준비와 전략’을 제시하며,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한국문학의 해외보급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황민선의 연구는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에 의한 한국 출판물 해외 소개 현황과’ 출판사에 의한 해외 소개 현황’을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 출판물의 해외 소개가 부진하다고 보고, 그 원인을 시장 경제 원칙의 요인, 번역 인재 부족의 요인, 정부의 번역, 출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요인 등으로 살피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문제 그리고 발간된 시집에 대한 현황 파악이 소홀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개별 언어권에 대한 연구와 번역의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는 연구도 적지 않다.¹³⁾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현황

13) 개별 언어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김용민, 『독일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의 현황과 전망』, 『독일언어문학』, 제21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03, 409-442쪽.
- 엄순천, 「한국에서의 러시아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노어노문학』, 제17권(제3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05, 241-272쪽.
- 임춘성, 「한중 문화의 소통과 횡단에 관한 일 고찰-중국의 한문학 번역·출판의 예」, 『외국문학연구』, 제3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 227-247쪽.
- 홍정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문화사연구』, 제43호,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394-414쪽.
- 권혁률, 「한국문학의 중국어권 번역과 수용에 관한 일고찰 - KLTI 출범 10년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제9권(제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1, 79-95쪽.
- 권선형, 「한국문학의 독일어 번역 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 200년대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85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4, 403-440쪽.
- 최수연, 「한국 현대 소설의 영어 번역 출판 전략」, 『통번역학연구』, 제21권(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연구소, 2017, 239-274쪽.
- 한현희,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 현황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제19권(제4호), 한국번역학회, 2018, 321-360쪽.
- 이외에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2018년 『한·러 수교(1990년) 이후 한국 및 러시아문학 작품의 번역서지목록집』을 발간하였다.

파악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번역서의 목록이 다른 연구에서 활용되는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작성한 번역시집 목록을 바탕으로 시기별, 번역어별, 시인과 시집별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 파악의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와 더불어 번역시집 목록을 공신력 있는 공공재로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시기별 현황

한국 시집의 외국어 번역은 1929년 『조선민요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조선민요집』은 김소운(金素雲, 1907~1981) 번역 『朝鮮民謠集』으로 일본 동경에서 출판되었다.¹⁴⁾ 김소운은 이외에도 『乳色の雲』(東京, 河出書房, 1940)와 『朝鮮詩集』 전기·중기(東京, 興風書館, 1943)도 번역 출판하였다.¹⁵⁾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시집이 일본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 출판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에도 1950년대 이전에는 한국 시집이 외국어로 번역되

14) 한국문학번역원 자료에는 1929년 김소운이 『時調抄譯』을 김교환(金敎煥)이 『朝鮮民謠集』을 각각 번역 출판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서는 『朝鮮民謠集』이 김소운의 번역으로 동경 泰文館에서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소운은 1933년 동경 第一書房에서 『(諺文) 朝鮮口傳民謠集』을 발행한다. 『時調抄譯』과 김교환에 대한 자료는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및 일어 번역본 목록 등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의 검색 결과가 한국문학번역원 자료와 일치하나, 실물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차후 더 정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이는 한국문학번역원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 『朝鮮詩集』은 『乳色の雲』의 개정 보정판으로 1953년 東京 創元社에서 간행된 이후 1954년 岩波文庫에서 다시 간행해 현재에 이른다. (심원섭, 「金宗漢과 金素雲의 정지용 시 번역에 대하여 - 『雪白集』과 『朝鮮詩集』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1집, 한국문화회, 2005, 385-408쪽. 양동국, 「제국 일본 속의 <조선 시 붐> - 유학생 시인과 김소운의 『朝鮮詩集』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3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107-134쪽. 참조)

어 출판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각각 14권 10권의 시집이 번역 출판되었다. 1950, 60년대 시집의 번역 출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1950, 1960년대 한국 시집의 외국어 번역 출판 현황

1950년대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계
	2	-	-	1	3	1	1	1	3	2	14
1960년대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계
	5	1	3	-	-	1	-	-	-	-	10

이중 1950년대 번역시집의 14권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50년대 번역시집 목록

번역시집 제목	원제목	국가	번역어	저자	번역자	발행연도
PĚKTUSAN	(장편서사시) 백두산		체코어	조기천	Alois Pultr, SĚMU HAGWONA	1950
Пектусан	백두산	러시아	러시아어	조기천	Александр Гитович	1950
Моя Корея	나의 조선		러시아어	서만일		1953
白头山	백두산		중국어	조기천	适夷	1954
生之歌	생의 노래		중국어	조기천	李烈	1954
Се Ман Ир	서만일 시선집		러시아어	서만일	М. Светлов	1954
朝鮮的歌	조선의 노래		중국어	민병균	冰蔚	1955
Корейские шестистишия	조선 시조	러시아	러시아어		А.Л. Жовтиса, П.А. Пак Ира	1956
Before Love Fades Away	사랑이 가기 전에		영어	조병화	Dong-sung Kim	1957
CHRYSANTÉMY	국화: 한국시조집		체코어		Oldřich Vyhřidal	1958
Восточный альманах	동양문학선		러시아어	김소월	Hyun Won-sook	1958

Героическая лирика	영웅적서정시	러시아	러시아어	한윤호	Анатолий Леднев	1958
Selected Poems of Kim So Wol	김소월 시선		영어	김소월	Dong-sung Kim	1959
石阿花	석아화	대만(필자)	중국어	조병화	郭衣洞	1959

남한의 시집은 영어로 번역된 『김소월 시선』과 조병화의 『사랑이 가기 전에』 중국어로 번역된 『석아화』¹⁶⁾ 세 권에 불과하다. 당시 북한이 우리 시집을 해외에 알리는 데 나름대로 더 공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권의 번역시집을 러시아, 중국, 체코 등 당시 공산권 국가의 언어로 번역 출판하고 있다. 김소월은 남한 측에서는 영어로 북한 측에서는 러시아어로 각각 번역하여 양쪽 다 주요한 시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기천은 1950년대 이미 4권의 시집이 체코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이후로도 4권의 시집이 더 번역되어 북한의 주요한 시인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번역시집 10권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1960년대 번역 시집 목록

번역시집 제목	원제목	국가	번역어	저자	번역자	발행연도
Voices of the Dawn	새벽의 목소리: 한국시선집		영어	성충	Peter Hyun	1960
不死鳥	불사조		중국어	송영	金聖哲	1960
Пэжрэн чхoxэ	백련초해: 서정시선집		러시아어		Д. Елисеев	1960
Poetry and music of the classic age	시조와 아악		영어		Ha Tae Hung	1960
Korea sings	한국의 민요		영어		Ha Tae-Hung	1960

16) 『석아화』는 조병화가 1957년 12월에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발족한 방화(訪華)한국문화친선단의 일원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에 대해 쓴 연작시이다. 서세린, 「조병화 연작시화집 『석아화』(1958)에 나타난 ‘대만’ 인식 연구」, 『동악어문학』, 제80집, 동악어문학회, 2020, 49쪽.

Радостное письмо	기쁜 편지	러시아	러시아어	김정서		1961
Цветок багульника	김소월 시선		러시아어	김소월	А.Ф. Троцевич	1962
И если я, Мечтатель, Полюблю.	공상가인 나는 사랑한다면		러시아어	허진	Хо Унбэ, М. Д. Яснов	1962
Корейские лирики	한국의 서정시가 : 13세기에서 현대까지	러시아	러시아어	김소월	А. Жовтиса, П.А. Пак Ира	1962
黃海之歌	황해의 노래		중국어	박팔양	王文光	1965

1960년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0권의 시집 중 5권이 러시아어로 2권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영어로 번역된 시집은 세 권에 불과하다. 이 세 권의 시집은 모두 고전문학 작품이다. 1960년대 남한에서는 창작 시집이 단 한 권도 번역되지 않은 상황이다. 1970년대 이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1970년대 이후 한국 시집의 외국어 번역 출판 현황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1970	2	1980	3	1990	6	2000	20	2010	14	2020	24
1971	3	1981	2	1991	5	2001	18	2011	26	2021	22
1972	3	1982	5	1992	6	2002	9	2012	22	2022	14
1973	1	1983	3	1993	6	2003	16	2013	13	2023	5
1974	5	1984	4	1994	14	2004	13	2014	24		
1975	3	1985	5	1995	10	2005	35	2015	24		
1976	3	1986	6	1996	12	2006	21	2016	20		
1977	2	1987	6	1997	12	2007	18	2017	28		
1978	4	1988	9	1998	4	2008	13	2018	20		
1979	2	1989	5	1999	14	2009	16	2019	28		
계	28	계	48	계	89	계	179	계	219	계	65

1970년대 이후로 양상은 확연히 달라진다. 번역시집의 출판 양상이 2000년대까지 거의 10년 단위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다. 1960년대까지 번역시집이 몇십 권에 불과했고, 그것도 북한에서 활동했던 시인들의 시집이 당시 공산권 국가에서 번역되었으나, 이제는 한국 시집이 650번 이상 번역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어와 번역시집의 발행 국가도 다채로워지고, 번역시집과 시인도 그 폭이 매우 넓어졌다. 3장과 4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알아본다.

3. 국가별, 언어별 번역시집 발행 현황

한국어 시집은 3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43개국에서 출판되었다. 36개의 언어는 그루지아어, 그리스어, 네델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벵갈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랍어, 알바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타이어, 튀르키예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등이다.

이중 영어로는 7개국에서 217번이 번역 출판되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판된 경우가 133번으로 가장 많고, 한국에서 67번, 영국 9번, 캐나다 3번, 인도 2번, 아일랜드, 필리핀, 중국에서 각각 1번씩 출판되었다.¹⁷⁾ 미국에서의 출판 비

17) 한국문학번역원 자료에는 66번의 국가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각주 2)에서 제시한 과정을 거쳐 서지사항을 확인하여 국가를 특정할 수 있었다.

중이 61%, 한국은 31% 정도로, 양국이 합쳐 90%를 상회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가 광범위한 데 비하여 번역된 시집이 출판된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며, 발행 횟수도 매우 빈약하다. 영어권이 아닌 중국에서는 민요집인 *Korean Folk Songs* 한 번이 번역되었다.

영어권에서 가장 많은 시집이 번역된 시인은 고은으로 미국에서 12번 영국에서 1번 총 13번 시집이 번역 출판되었다. 김혜순 시인은 7번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구상은 7번 번역되었으나, 국내에서 5번 출판되고 미국에서 출판된 것은 2번에 불과하다. 조병화 역시 6번 번역되었으나, 미국에서 출판된 것은 1번이고 5번은 국내 출판이다.

김소월은 4번 번역되었으나, 1번은 캐나다에서 출판되고 3번은 국내 출판이다. 정지용은 2번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한용운은 4번 번역되어 2번은 국내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1번씩 출판되었다. 백석은 미국에서 1번 국내에서 1번 총 2번 번역 출판되었다. 유치환은 미국에서 2번 출판되었다.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영역본은 국내에서 1989년과 1999년에 2번,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2003년에 출판된다.

일본어로는 110번 번역되었는데 그중 1번 한국에서 출판되었고, 1번은 출판사 미상이며, 108번 일본에서 출판된 것이 확인되었다.¹⁸⁾ 김지하는 8번 번역되어 가장 많은 일본어 번역시집이 있다. 윤동주는 1984년부터 2015년까지 7번에 걸쳐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7번이고 『별을 노래하는 시인』이 1번이다.

18) 한국문화번역원의 자료에는 44번의 국가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각주 2)에서 제시한 과정을 거쳐 서지사항을 확인하여 국가를 특정할 수 있었다. 1991년 加藤建二의 번역으로 간행된 양성우의 시집 『梁性佑新作詩集 5月祭』는 ‘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에도 서지 사항이 비어 있으며, 어디에서도 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독일어로는 67번 번역되었다. 66번은 독일에서 출판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1번은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¹⁹⁾ 가장 많은 번역 시집을 출판한 시인은 황동규로 각기 다른 6권의 시집이 번역되었다. 고은이 4번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용운과 김지하의 시집이 각각 3번 번역되었다.²⁰⁾ 김광규, 박이문, 신경림, 오세영, 이상, 조병화, 황지우 등이 2번 번역시집을 냈으며, 김소월, 김재혁, 김종길, 김혜순, 김후란, 마종기, 문정희, 박희진, 서정주, 오규원, 오정희, 윤동주, 이성복, 이시영, 전봉건, 전영애, 정현종, 채운정, 천상병, 최승호 등의 번역시집이 각각 1번씩 번역시집을 출간하였다.

프랑스어로는 66번 번역되었다. 프랑스에서 58번, 룩셈부르크 2번 한국에서 5번, 미국에서 1번 출판되었다. 고은이 7번으로 가장 많은 시집이 번역되어 있으며, 김혜순이 3번으로 그 뒤를 잇는다.²¹⁾ 그리고 김혜순, 문영훈, 서정주, 성기조,²²⁾ 윤동주, 이상, 이성복, 조병화, 한용운 등의 시집이 각각 2번씩 번역 출간되었다. 그 외 곽효환, 이병률, 구상, 기형도, 김광규, 김소월, 김요섭, 김지하, 김춘수, 김현승, 나희덕, 마종기, 문정희, 박목월, 박상순, 박이문, 소한진, 신동준, 오세영, 오정희, 이가림, 이은상, 정지용, 조정권, 조지훈, 진은영, 최승호, 한하운, 황동규 등이 1번 프랑스어 번역시집을 냈다.

19)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료에는 22번의 국가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각주 2)에서 제시한 과정을 거쳐 서지사항을 확인하여 국가를 특정할 수 있었다. 조병화 시집 『어느 생애:조병화 시선집』의 번역본 Ein Leben은 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20) 한용운의 시는 1991년(Verlag Christian Rohr)과 2005년(Deutscher Taschenbuch Verlag)에 출판사를 달리하여 *Wind und Gras*(한국어 제목 “바람과 풀”)로 두 번에 걸쳐 출판된다. 번역자가 둘 다 Marion Eggert로 같은 책을 복간한 것으로 보인다. 『님의 침묵』은 2001년 *Das Schweigen des Geliebten*로 출판된다.

21) 조경수도 3번이 번역되었으나, 모두 국내 출판으로 논외로 한다.

22) 성기조의 시집은 1번은 룩셈부르크에서 1번은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스페인어로는 6개국에서 44번 번역시집이 출판되었다. 스페인에서 27번, 멕시코에서 9번, 아르헨티나에서 5번 출판되었고, 코스타리카와 우르과이에서 각각 1번씩 출판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스페인어로 번역된 시집이 1번 출판되었다. 스페인어로는 고은이 4번으로 가장 많으며, 서정주, 오세영, 최승호가 각각 3번씩 있고, 김기택, 김지하, 문정희, 정지용, 황지우 등의 시집이 각각 2번씩이다. 고창수, 기형도, 김광규, 김남조, 김소월, 김수복, 김춘수, 나희덕, 백무산, 송기원, 신달자, 오정희, 윤동주, 이형기, 임기중, 정현종, 정호승, 채호기, 천상병, 한용운 등의 시집도 1번씩 번역시집을 출간하였다.

중국어로는 38번 번역되었다. 이중 29번이 중국에서 출판되었으며, 대만에서 7번 한국에서 1번, 북한에서 1번이 출판되었다.²³⁾ 중국어 번역시집은 북한에서 활동한 조기천이 4번으로 가장 많다.²⁴⁾ 고은은 중국과 대만에 각각 한 번씩 2번 중국어 번역시집을 냈고, 김남조는 한국과 중국에서 번역시집을 출간하였다. 나태주의 시집은 2번 대만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중국에서 2011년, 2021년 2번 번역되었다. 김광규, 김소월, 김양식, 김영현, 남영전, 류시화, 문정희, 민병균, 박목월, 박팔양, 서정주, 성기조, 송영, 오세영, 오세희, 유안진, 이시환, 이은상, 정

23)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료에는 19번의 발행국가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각주 2)에서 제시한 과정을 거쳐 서지사항을 확인하여 국가를 특정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1974년에 번역된 『金剛山之歌』는 북한의 조선외국문출판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외국문출판(朝鮮外國文出版社)는 “1956년 5월 북한의 각종 도서를 외국어로 번역 간행하기 위해 창립한 출판사”라는 점에서 북한에서도 적지 않은 번역시집을 출판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 조기천(趙基天, 1913~1951)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海參崴] 연해주 출생으로 광복 후 입북하여 북한에서 활동하였다. 1954년에 『生之歌』, 『白头山』(适夷 역) 1978년에 『白头山』(張琳 번역), 1992년에 『世界反法西斯文學書系』의 중국어 번역시집이 출판되었다.

준기, 정현종, 정호승, 조병화, 한용운, 허세욱 등이 각각 1번씩 중국어 번역시집을 출간하였다.

러시아어로는 40번이 번역되었다. 35번이 러시아에서, 1번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출간되었고, 한국에서 3번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1번은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²⁵⁾ 2000년 이전까지 러시아에서는 남한에서 활동한 시인의 시집은 거의 출간되지 못하였다. 조기천, 서만일, 한윤호 등 북한에서 활동한 시인이나, 카자흐스탄에서 고초를 겪었던 강태수와 러시아 유학생이었던 명동욱 등의 시집과 남북한에서 함께 사랑을 받았던 김소월의 시집이 번역되었을 뿐이다. 남한의 시인으로서 2000년 정현종이 처음 소개된다. 러시아어로는 김소월이 4번 번역되어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 정호승 시인의 시집 2번이 번역되었다. 운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러시아어 번역본이 러시아와 한국에서 각각 한 번씩 발행되었다. 그 외 김남조, 김언, 김지하, 문정희, 송찬호, 이규형, 이성복, 정현종, 최동호, 한용운, 김달진 등의 시집이 번역 소개되었다.²⁶⁾ 그리고 이육사를 대표저자로 하는 시선집 『봄은 오는가 - 한국현대시선집』이 우크라이나에서 출간되었다.

베트남어로는 10번 번역되어 모두 베트남에서 출판되었다.²⁷⁾ 고은 시집 『내일의 노래』와 『만인보』는 2번이 번역되었으며, 김소월의

25)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료에는 44번의 국가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각주 2)에서 제시한 과정을 거쳐 서지사항을 확인하여 국가를 특정할 수 있었다. 1958년 김소월이 저자로 현원숙이 역자로 올라 있는, 『동양문학선』(번역서 *Восточный альманах*)은 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26) 한용운과 김달진은 공동 시집 『당신이 신이다』(번역서 *Сборниккорейскойпоэзии*)로 소개되었다.

27)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료에는 11번의 시집 중에 4번의 발행국가가 특정되지 않아 각주 2)에서 제시한 과정을 거쳐 서지사항을 확인하여 국가를 특정할 수 있었다. 최숙희의 『모르는 척 공주』는 '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e'에서 시집으로 분류하였으나, 동화책 또는 그림책으로서 시집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제외하였다.

『진달래꽃』,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이 번역되었다. 고희렬, 김광규, 도종환, 이동순 등의 시집도 각각 1번씩 번역되었다.²⁸⁾

체코어로는 9번 번역되었다. 1950년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출판되었으며, 1958년에는 『국화:한국시조집』이 출판되었으나, 제목과 발행 연도 이외의 다른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마도 당시 북한 측을 통해 번역과 출판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6년 한용운의 『님의침묵』이 번역되었고, 2000년대 들어 고은의 시집이 2번, 김광규, 김삿갓, 오세영 등의 시집이 각각 1번씩 번역 출간된다.

아랍어로는 7번이 번역되어 이집트에서 5번, 오만에서 1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번 출판되었다.²⁹⁾ 이들은 모두 2011년 이후 번역되었으며, 고은의 시집이 3번(이집트 2, 아랍에미레이트1) 김소월, 이상, 김광규, 조오현(오만)의 시집이 각각 1번씩 번역 출간되었다. 몽골어에서는 6번 시집이 번역되었다.³⁰⁾ 2015년 황동규, 신달자, 최동호의 시집을 효시로, 이후 2017년 최동호, 2018년 고은, 2019년 정호승의 시집이 각각 1번씩 번역 출판되었다. 스웨덴어로도 6번 시집이 번역되었다. 1976년 김지하의 『오적』이 1993년 조병화의 『꿈』이 번역되었고, 2000년대 들어 고은의 시집이 2번 문정희, 김양식의 시집이 각각 1번씩 번역 출판되었다.

이탈리아어로는 2005년 이후 5번이 번역되었는데, 고은의 시집

28) 사화집으로 추정되는 『아름다운 한국의 현대시들』도 발간되었으나 출판사(Nhà xuất bản Thanh niên) 이외에 역자와 편자 등 다른 출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9) 2011년 번역된 고은 시집 『남과 북』은 한국문학번역원 자료에는 국가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아랍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특정하였다.

30) 2017년 신경림 시인의 『시인을 찾아서』 1, 2 두 번이 번역 출판되었으나, 이는 시 해설 서로서 시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제외하였다.

이 2번, 황진이, 김소월, 조용미의 시집이 각각 1번씩 있다. 튀르키예어로도 5번이 번역되었다. 2005년 『김소월 시선』을 시작으로 이후 천상병, 고은, 윤동주, 김지하의 시집이 각각 1번씩 번역 출판되었다.

루마니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로는 각각 3번 시집이 번역되었다. 루마니아어로는 변영로, 서정주, 고은의 시집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문정희, 윤동주, 나태주의 시집이, 태국어로는 2019년 한 해에 안미옥, 조성용, 나태주의 시집이 번역 출간되었다. 포르투갈어로는 이상, 김기택, 김지하의 시집이 각각 1번씩 번역되어 브라질에서 출판되었다.

조지아어, 노르웨이어, 불가리아어로는 각각 3번 시집이 번역되었다. 조지아어로는 2017년 윤동주, 2019년 정호승의 시집이, 노르웨이에서는 2007년 고은, 2013년 이상의 시집이 번역 출간되었다. 불가리아어로는 2000년 우탁을 대표 저자로 하는 『시조:한국 고전 시선』이, 2009년에는 저자가 특정되지 않은 『한국의 선시』가 번역 출간되어, 한국의 근현대 시집은 아직 소개되지 않았다.

알바니아어로는 문정희의 시집(『화살의 숲』, 2007)이 번역되어 마케도니아에서, 크로아티아어로는 『서정주 시선』(2003)이 번역되어 세르비아에서 출간되었다.³¹⁾ 벵갈어로는 고은 시집(『해골의 침묵』, 2017)이 번역되어 방글라데시에서, 히브리어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2022)이 번역되어 이스라엘에서, 힌디어로는 김양식의 시집(『귀청을 울리며』, 1999)가 번역되어 인도에서 출간되었다. 덴마크어로는 김혜순 시집(『죽음의 자서전』, 2021)이, 네덜란드

31) 알바니아어와 마케도니아어, 크로아티아어와 세르비아어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

어로는 김소월 시집(『가을 언덕』, 1996)이, 그리스어로는 고은 시집(『뫼냐』, 2014)이, 헝가리어로는 윤선도를 대표저자로 하는 시조집 『오우가:한국의 시조』(2002)가, 폴란드어로는 고은 시집(『만인보』, 2012)가, 슬로베니아어로는 고은 시집(『허공: 고은 시집』, 2016)이, 우크라이나어로는 조지훈 시집(『승무』, 2021)이 각각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한국어 시집은 3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43개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이중 영어로 7개국에서 217번 번역 출판되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이 110번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각각 67번, 66번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스페인어로는 6개국에서 44번, 중국어로는 38번, 러시아어로는 40번 번역시집이 출간되었다. 그 외 베트남어, 체코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등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세계 전역에 걸쳐 한국 시집이 번역 출간되고 있다.

4. 시집과 시인

번역시집을 가장 많이 출간한 시인은 고은이다. 고은의 시집은 18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23개국에서 53번 출판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윤동주가 22번인데 비하면 압도적인 숫자이다. 김소월 21번, 김지하 20번, 서정주 17번, 한용운,³²⁾ 조병화와 김혜순 각각 14번, 오세영 12번, 이상, 김남조, 황동규 등이 각각 10번으로 그 뒤를 잇

32) 한용운이 대표 저자로 되어 있는 시선집 2권은 제외하고, 러시아에 김달진과 함께 소개된 시집 『당신이 신이다』를 포함한 숫자이다.

고 있다.

고은의 25권의 시집은 아랍어, 벵갈어, 중국어, 체코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몽골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터어키어, 베트남어 등 18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23개국에서 53번 출판되어 가장 광범위하게 소개된 한국 시인이다.

윤동주의 번역시집은 대부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이고 한 권은 그 별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별을 노래하는 시인』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이육사와의 공동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윤동주, 이육사 시선』이다.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조지아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터어키어 등 1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 22번 소개되었다. 김소월의 시집은 아랍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터어키어, 베트남어 등 1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2개국에서 21번 출판되었다.

김지하의 12권의 시집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터어키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서 20번 출간되었다. 서정주의 14권의 시집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되어 6개국에서 17번 발간되었다.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과 『바람과 풀』 그리고 김달진과의 공동 시집 『당신이 신이다』은 중국어, 체코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1개국에서 14번 출간된다.

조병화의 13권의 시집이 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6개국에서 14번 출간되고, 김혜순의 9권의 시집이 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5개국

에서 14번, 김광규의 9권의 시집은 8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8개국에서 12번, 문정희는 8권의 시집이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서 12번, 오세영의 7권의 시집은 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6개국에서 12번 출간된다. 이상의 시집은 『날개』, 『오감도』, 『시는 시이고 또 시이다』 등의 제목으로 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7개국에서 10번 출간된다. 김남조의 6권의 시집은 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6개국에서 10번, 황동규의 8권의 시집은 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4개국에서 10번, 나태주는 공동시집 포함 5권이 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5개국에서 10번 출간된다.

구상, 김남조, 정호승은 9번의 번역시집이 출간되었고, 신경림과 김양식은 8번, 정현종과 조기천은 7번, 박이문, 최승호, 이성복은 6번, 고희렬, 김승희, 김춘수, 마중기, 정지용, 천상병, 황지우 등은 5번 번역시집이 출간되었다. 김기택, 도종환, 문덕수, 성기조, 신달자는 4번, 김소엽, 김수영, 김영랑, 김후란, 박희진, 백석, 송찬호, 신동춘, 신창호, 안도현, 오정희, 정기석, 조경수, 최동호 등의 시집이 각각 3번씩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번역시집이 2권 출간된 시인으로는 강은교, 고창수, 곽효환, 권오택, 기형도, 김경주, 김광규, 김민정, 김선우, 김요섭, 김이듬, 김종길, 김초혜, 류시화, 문영훈, 박노해, 박목월, 박형봉, 서만일, 심보선, 양성우, 오규원, 유안진, 유치환, 이시영, 이영주, 이육사, 이은상, 조지훈, 진은영 등이 있다. 번역시집이 1권 출간된 시인은 다음과 같다.

강선봉, 강옥구, 강태수, 고두동, 김광림, 김광현, 김구슬, 김근, 김남주, 김달진, 김사인, 김성규, 김수복, 김수열, 김언, 김언희, 김영무,

김영현, 이현주, 김유, 김인겸, 김재혁, 김정서, 김준태, 김중일, 김학철, 김해자, 김행숙, 김현, 김현승, 김형영, 김혜영, 류춘도, 리동래, 명동욱, 문병란, 문보영, 문태준, 민병균, 박도선, 박두진, 박상순, 박재삼, 박정대, 박주택, 박태진, 박팔양, 반디, 배달순, 백무산, 백한이, 변영로, 성찬경, 소한진, 송기원, 송영, 신동엽, 안미옥, 안봉자, 안상학, 안재진, 안주철, 유순, 유형진, 이가림, 이경립, 이규형, 이동순, 이만상, 이종석, 이설야, 이성선, 이소호, 이승신, 이시환, 이영광, 이윤복, 이장욱, 이철환, 이해인, 이형기, 이혜미, 임기중, 임석재, 임솔아, 장이지, 장정임, 장진성, 전봉건, 전영애, 정동주, 정우신, 정일근, 정준기, 조성용, 조오현, 조용미, 조정권, 조태일, 채운정, 채호기, 최숙희, 최승자, 최연홍, 최영미, 최종렬, 피천득, 하일지, 한강, 한성례, 한운호, 한하운, 함혜련, 허남기, 허세욱, 허수경, 허영선, 허윤정, 허진, 허형만, 혜심, 황갑주, 황규관, 황석영

1권의 번역시집이 있는 시인은 총 124명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211명 시인의 시집이 421번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³³⁾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20번 번역 출간되어 해외에 가장 많이 소개된 시집이다.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조지아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튀르키예어 등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서 20번 출간된다. 영어 번역본은 국내에서 1989년과 1999년에 2번,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2003년에 출판된다. 한국에서 출판되었을 때는 각각 *Heaven, the wind, start and poems*, *The heavens, the wind, the stars and*

33) 여기에서는 김삿갓, 성충, 우탁, 정철 등 고전 시가의 시인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한국 Poet협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등과 같은 단체도 제외하였다. 공동 시집의 경우 시인은 나누어서, 간행 횟수는 합쳐서 계산하였다.

poetry로, 미국에서 출판되었을 때는 *Sky, wind, and stars*로 번역 시집 세 권의 제목이 모두 다르다. 영어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일본어 번역본도 『空と風と星と詩』(1984, 2004, 2015), 『死ぬ日まで天を仰ぎ』(2005), 『天と風と星と詩』(1998) 등으로 제목이 각각 다르다.³⁴⁾ 중국에서는 2011년 『天风星星与诗』으로 2021년 『数星星的夜：尹东柱的诗』으로 번역되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고은의 『만인보』은 각각 11번 번역 출간되었다. 『진달래꽃』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페르시아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서 11번 출간되었다. 『님의 침묵』은 중국어, 체코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9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서 출간되었다. 『만인보』는 아랍어, 체코어, 영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튀르키예어, 베트남어 등 1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11개국에서 출간되었다.

고은의 『순간의 꽃』이 7번, 이상의 『날개』와 고은의 『뫼냐』가 각각 5번씩 번역 출간되었고, 4번 번역 출간된 시집으로는 천상병 『귀천』, 이성복 『아, 입이 없는 것들』, 이상 『오감도』, 김혜순 『죽음의 자서전』,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고은 『히말라야: 詩篇』 등 6권이 있다.

근현대 시인으로서 번역시집이 있는 시인은 211명이며 출간 횟수는 421번이다. 그중 고은이 18개의 언어로 23개국에서 53번 번역시집을 출간하여 해외에 가장 널리 소개된 한국 시인이다. 그 뒤로 윤동주가 22번, 김소월이 21번 번역시집을 출간하여 비교적 해

34) 『별을 노래하는 시인』의 일본어 제목은 『星うたう詩人』이다.

외에 많이 알려진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가장 많이 소개된 시집은 운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서 20번 번역 출간되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고은의 『만인보』은 각각 11번 번역 출간되어 그 뒤를 잇고 있다.

5. 번역시집 목록의 문제

이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시집 목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669권에 이르는 방대한 번역시집 목록을 번역시집의 제목, 원제목, 번역 국가, 번역어, 번역어본의 저자 표기, 저자, 역자, 발행연도, ISBN까지 서지사항을 정리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신뢰성도 가장 높은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자료를 조금만 보완하면 가장 공신력 있는 공공재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번역시집의 현황 파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시집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부록의 목록을 다른 연구자가 활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실제 활용된 사례도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번역시집의 목록이 공신력 있는 공공재로 확립되어 누구라도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면, 굳이 번거롭게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쉽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번역시집 목록의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국 난이 192개가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다. 발행

국 난의 빈 부분은 이 번역시집의 목록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허술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으며,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이 확인되었다. 둘째, 시론집, 시 해설서 등 시집과 성격이 다른 출판물을 별도로 분류하는 문제이다. 시에 관한 출판물의 목록과 시집의 목록은 따로 분류되는 것이 자료의 활용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시집의 제목만으로 같은 내용에 대한 출판물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김소월 시선』은 7번 번역 출간되었는데 모두 같은 시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번역시집의 목록이 공공재로서 항상 공개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누구라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된 자료가 확인되면 목록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둘째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자료를 더욱 섬세하게 가다듬어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공신력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기를 띠고, 논의에 대한 검증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시집 목록은 이미 방대한 자료가 활용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소한 보완 과정을 거치면 공공재로서의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시집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의 시집이 외국어로 번역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

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목록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연구사를 살펴보면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현황 파악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번역서의 목록이 다른 연구에서 활용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작성한 번역시집 목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집에 국한하여 시기별, 번역어별, 시인과 시집별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 파악의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와 더불어 번역시집 목록을 공신력 있는 공공재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 번역시집이 몇십 권에 불과했고, 그것도 북한에서 활동했던 시인들의 시집이 당시 공산권 국가에서 번역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번역시집의 출간 횟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어와 출간 국가가 폭넓게 펼쳐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집을 살펴본 결과 근현대 시인으로서 번역시집이 있는 시인은 211명이며 출간 횟수는 421번이었다. 그중 고은이 18개의 언어로 23개국에서 53번 번역시집을 출간하였고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윤동주가 22번, 김소월이 21번 번역시집을 출간하여 비교적 해외에 많이 알려진 시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 가장 많이 소개된 시집은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10개국에서 20번 번역 출간되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고은의 『만인보』은 각각 11번 번역 출간되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시집 목록은 이미 방대한 자료가 활용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에 대해 일

부 보충해야 할 부분과 자료 정리를 다소 보완하여 항시적으로 공개 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종길 외, 『한국문학 외국어번역의 현황과 전망』, 민음사, 1997.
 봉준수 외,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여석기 외, 『한국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 및 해외보급 방안』, 고려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1980.

□ 참고논문

- 곽효환,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권선형, 「한국문학의 독일어 번역 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 2000년대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85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4, 403-440쪽.
 권혁률, 「한국문학의 중국어권 번역과 수용에 관한 일고찰 - KLTI 출범 10년을 중심으로」, 『동번역교육연구』, 제9권(제2호), 한국동번역교육학회, 2011, 79-95쪽.
 김용민, 「독일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의 현황과 전망」, 『독일언어문학』, 제21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03, 409-442쪽.
 김현자, 「프랑스에서 한국시 번역 출판」, 『서정시학』, 제72호, 서정시학, 2016, 62-69쪽.
 박상연,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 현황과 실태」, 『문예중앙』, 제19권(제2호), 중앙일보사, 1996, 36-67쪽.
 서세린, 「조병화 연작시화집 『석아화』(1958)에 나타난 '대만' 인식 연구」, 『동악어문학』, 제80집, 동악어문학회, 2020, 49-83쪽.
 서준섭, 「한국 현대시의 외국어 번역 현황 - 1980년 이후의 시집 번역 점검」, 『시와시학』, 제71호, 시와시학사, 2008, 63-77쪽.
 심원섭, 「金宗漢과 金素雲의 정지용 시 번역에 대하여 - 『雪白集』과 『朝鮮詩集』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1집, 한국문학회, 2005, 385-408쪽.
 양동국, 「제국 일본 속의 〈조선 시 붐〉 - 유학생 시인과 김소운의 『朝鮮詩集』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3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107-134쪽.
 엄순천, 「한국에서의 러시아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노어노문학』, 제17권(제3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05, 241-272쪽.

- 임춘성, 「한중 문화의 소통과 횡단에 관한 일 고찰-중국의 한문학 번역·출판의 예」, 『외국문학연구』, 제3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 227-247쪽.
- 최수연, 「한국 현대 소설의 영어 번역 출판 전략」, 『통번역학연구』, 제21권(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7, 239-274쪽.
- 한승희, 「러시아에서의 한국 현대시 소개 과정 연구 - 2000년대에서 2020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69호, 한국시학회, 2022, 207-236쪽.
- 한현희,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 현황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제19권(제4호), 한국번역학회, 2018, 321-360쪽.
- 홍정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문학사연구』, 제43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394-414쪽.
- 황민선, 「한국 출판물의 해외 소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43호, 한국출판학회, 2001, 353-380쪽.
- Chen Yijun, 「박인환 시집 『목마와 숙녀』에 관한 중국어 번역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ABSTRACT

Current Status of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and Overseas Publication of Korean Poetry Collections

Park Soon-won³⁵⁾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poetry collections translated into foreign languages. Based on the list of translated poems of the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the current status of each period, translated word, poet and collection of poems was identified, and a plan to establish the list of translated poems as a credible source was proposed.

First, looking at the status by period, it can be seen that the publication of translated poetry has increased very steeply since the 1970s. As a result, it can be assumed that the translation language and country of publication have been widely spread. As a result of examining poetry books, there are 211 poets who have translated poetry books as modern and contemporary poets, and the number of publications was 421 times. Among them, Ko Eun published 53 translated poetry books and has an overwhelming advantage, followed by Yun Dong-ju 22 and Kim

35)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So-wol published 21 translated poetry books, indicating that they are relatively well-known overseas poets. In addition, the most introduced poetry collection abroad is Yoon Dong-ju's Sky, Wind, Stars and Poetry, which has been translated into 10 languages and published 20 times in 10 countries. Kim So-wol's Azalea Flower, Han Yong-un's My Lover's Silence, and Ko Eun's Maninbo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11 times each.

The list of translated poems of the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used in this study is a data that has already been organized for ease of use. In this regard, if the part to be supplemented and the data arrangement are somewhat supplemented and constantly disclosed,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be used more importantly for more active research in this field in the future.

Keywords: Translated Poems,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List of Translated Poems, Status by Period, Current Status
by Poet and Poetry

박순원

전자우편 : coolone2@hanmail.net

논문 접수일 : 06월 12일

심사 완료일 : 06월 18일

게재 확정일 : 06월 21일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활용한 중국 내 한국드라마 인식 분석 -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중심으로

이유정¹⁾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를 비롯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중국 시청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나누어 OTT 플랫폼에서 공개한 <더 글로리>는 드라마 공개 방식, 소재, 내용 및 주연 배우 등 각 방면에서 화제성을 보이며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선정된 드라마이다. 반면 중국은 현재 넷플릭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드라마 <글로리>는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이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에서 ‘한국 드라마 <글로리>(韓劇 黑暗榮耀)’ 키워드로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크게 네 가지 주제군을 형성하였다. 첫째, ‘드라마 정보’ 이다. 주연 배우, 학교폭력 소재, 스토리, 주제,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드라마 <글로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다. 둘째, ‘드라마의 차별화된 특징’이다. <글로리>는 기존 학교폭력 소재 드라마, 영화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를

1) 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응징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복수의 카타르시스와 통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가해자의 악행과 피해자의 참상을 충격적으로 그려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한국 드라마의 미국 드라마화’이다. <글로리>는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이다. 중국 시청자는 <글로리>가 기존 한국드라마가 보여주는 고유의 특징은 퇴색되어 가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미국 드라마화 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과감한 한국 드라마’이다. 중국 시청자는 한국 드라마가 심각한 사회문제도 소재로 활용하는 과감한 제작 태도가 한류 유행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신 한류 시대에 중국 시청자는 한국 드라마의 신선한 소재와 재미, 주제의식, 과감한 제작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글로벌 OTT 플랫폼에 의존한 제작 형태로 인해 점차 미국 드라마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우려하는 인식을 보였다. 세계화에 발맞춰 글로벌 지향적인 드라마 제작 추세에 중국 시청자의 인식은 한국 드라마 고유의 특징이 퇴색되는 것을 우려하는 인식은 현재 한국 제작자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글로리>, 한국드라마, 현실반영, 넷플릭스, 미국드라마화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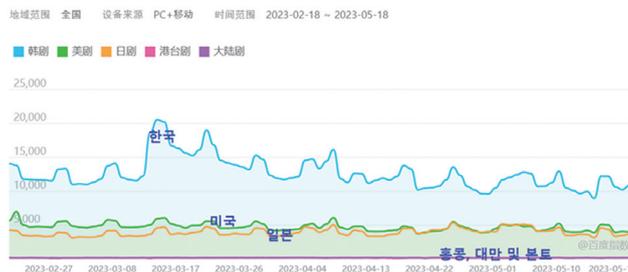
전 세계인이 ‘한류’를 향유하고 있는 시대이다. 한국 매체는 연일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인지도가 향상되었고 관광 등 한류의 경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을 통해 드라마를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류는 1990년대 말 중국의 한 신문매체가 중국 청년 세대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몰입 현상을 걱정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대중문화가 한국 이외의 국가 중에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되었고, 중국에서 한류의 역사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외국 대중문화의 유행은 개혁 개방 이후 홍콩, 대만 지역의 대중문화의 유입에서 시작되었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 홍콩, 대만은 같은 중화권 지역으로 언어, 정서적으로 친숙하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향유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 대중문화는 같은 아시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중국에서 한류의 시작은 드라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별은 내 가슴에>, <질투>,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가 중국 중앙 방송국(CCTV) 방영을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2005년 후난TV를 통해 방영된 <대장금>은 중국 전역에 한국 드라마가 그동안 시청했던 홍콩, 대만, 일본 드라마와 다르다는 차별성을 인식시키며 한류 열풍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었다.

2013년 중국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한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전체 드라마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열풍의 중심이 되었고, 특히 <별에서 온 그대>는 정부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할 정도로 중국 전역에 한국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을 인식한 중국의 대표 OTT 플랫폼 <아이치이(爱奇艺)>는 한국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동시 방영하면서 플랫폼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입자 수를 늘리기도 하였다.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따른 외교 갈등은 한류 콘텐츠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서 한국드라마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국 드라마 시청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²⁾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는 ‘구글 트렌드’와 같은 ‘바이두 지수(百度指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워드 중심으로 사용자의 최근 검색량과 관심 이슈에 대하여 기간, 지역별 추이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근 3개월 간 중국 포털에서 국가와 지역별 드라마에 따라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홍콩·대만 드라마’, ‘중국 본토 드라마’로 검색된 바이두지수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중국 내 해외 드라마(국가별) 검색량 바이두지수(百度指數) 그래프

2) 중국 인터넷에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외국 플랫폼은 서비스되지 않는 동안 바이두(百度), 텐센트(騰訊), 샤오홍슈(小紅書), 빌리빌리(bilibili) 등과 같은 유사 성격의 중국 자체 인터넷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자국 플랫폼 뿐만 아니라 우회 회로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를 동시에 향유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중국 포털에서 국가와 지역별 드라마 검색에서 가장 많은 검색량과 이슈를 보인 것은 ‘한국 드라마’이다. 기존에 많이 시청했던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보다 2배 가까운 지수를 나타냈다. 반면, 홍콩 및 대만 드라마와 중국 본토 드라마의 지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이두 지수에서만 보더라도 중국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향유는 국가 간의 정치·외교와 관계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린 것은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었다. 특히 격리와 재택 기간 중 집중적으로 기호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은 OTT 플랫폼의 세계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며, 플랫폼에 공개되는 다양한 콘텐츠는 제작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 경로의 확장을 가져왔다. 특히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³⁾ 이후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다양한 소재,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K-드라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를 통해 2022년 12월 30일, 2023년 3월 10일 총 16편을 시즌1,2로 나누어 공개되었고 다수의 아시아권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전 세계 주간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흥행작이다. <더 글로리>는 팬덤을 거느린 인기 시나리오 작가 김은숙의 극본, 예능PD 출신 안길호 감독, 유명 배우 송혜교 주연의

3)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분석 데이터는 그동안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주제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슈만으로 공개 전부터 화제가 된 드라마로써 고등학교 시절 잔인하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학업을 중단했던 한 여자가 18년의 준비 끝에 가해자를 향해 복수를 가하는 이야기이다. 한국에서 넷플릭스 <더 글로리> 공개되자 드라마 시청 후기, 드라마가 그려낸 학교폭력의 현실적 의미, 배우들의 연기와 드라마 영상미 등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흥미로운 지점은 드라마의 흥행 성공에 대한 기사와 함께 중국 시청자의 <더 글로리>에 대한 관심과 시청 후기를 두고 ‘도둑 시청’, ‘불법 스트리밍’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보도된 점이다.⁴⁾ 중국 시청자의 <더 글로리>에 대한 후기를 ‘도둑 시청’의 증거로만 보는 언론 보도의 관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는 역으로 중국 시청자가 최근 한중 국가 관계와 정서와 상관없이 여전히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바, 중국에서는 90년대 말부터 한국 드라마가 ‘한류’ 콘텐츠로써 꾸준히 중국 시청자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한한령(限韓令), 미중 갈등, 코로나 팬데믹 등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가 냉각기에 처해있지만 중국 시청자의 한류에 대한 관심과 향유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평가 수준도 점차 상향되고 있다. 이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韩剧 黑暗荣耀)’ 키워드로 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 분석을 통해 중국의 한국 드라마 <더

4) 이예지, 「또 ‘더글로리’ 도둑 시청한 中…평점만 15만 개」, 『동아닷컴』, 2023년 3월 14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더 글로리>에 대한 후기 작성만으로 중국 시청자가 모두 ‘도둑 시청’ 혹은 ‘불법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본 논문의 논외 주제이므로 다른 기회에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글로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중국의 한국 드라마 인식

문화의 해외 전파는 끊임없는 재해석과 지역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파되는 지역의 수용적 관점의 연구는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과 발전 방향 모색에 있어 토대가 된다. ‘한류’ 라는 용어와 한국 대중문화 외국 지역 유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한국 콘텐츠 수용에 대한 연구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한중 학술계의 연구를 예를 들면,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한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은 6,034편이며, ‘한류’와 ‘중국’으로 한정지어 검색된 논문은 1,153편이다. 검색 결과에서 ‘한국 드라마’와 ‘중국’으로 범위를 좁혀 검색된 논문 수는 195편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문헌 검색 사이트 知網(CNKI)에서 ‘한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은 6,034편이고, ‘한국 드라마’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은 3,403편, 학위논문, 신문 기사를 제외한 순수 학술 논문은 1,909편에 이른다. 학술 문헌 편수로 볼 때, 중국에서 호명되는 ‘한류’의 대표적인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인 것을 알 수 있다.⁵⁾

강필임·이귀옥·손승혜(2015)⁶⁾는 2013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에 관한 학술문헌을 수집하여 중

5) 언급한 대로 중국에서의 한류 수용에 관한 한중 양국의 학술논문은 상당수에 이른다. 이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 학계에서 중국의 한국 드라마 수용과 관련한 대표 논문을 위주로 하였다.

6) 강필임 외, 「중국의 한국 드라마 연구와 수용 - ‘별에서 온 그대’ 관련 중국학술논문 내용 분석」, 『中國學報』, 제74권, 한국중국학회, 2015, 204쪽.

국 학계에서 한국 드라마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중국 학계에서 생산한 <별에서 온 그대> 학술 문헌은 <별에서 온 그대>의 텍스트, 드라마 제작, 마케팅 분야에서 드라마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 위주였다.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내 성공 요인은 서사 장르의 융합, 입체적인 캐릭터,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이루는 주제, 작가의 위상, 상업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드라마 제작 환경과 시스템, 영상 기술,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등을 주목하였다. ‘한류’라는 용어에는 21세기 한국인의 문화적 욕망이 집약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한류와 한국 드라마를 문화패권주의적 질서와 문화제국주의 욕망이 겹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지적하였다.

박영환(2016)⁷⁾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한국드라마를 중심으로 중국의 한류 를 구분하였으며, 중국에서 한류 유행의 원인을 중국 지식인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초창기 한류 열풍의 원인을 유사한 문화권역을 배경으로 한 문화근접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학계에서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한류 유행의 원인을 객관적, 이성적, 논리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는 한국 드라마가 현실 소재, 전통적인 가치관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아속(雅俗)이 공상(共賞)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며 이를 중국의 문화 산업계와 드라마 제작 관계자가 배워야 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손미·안남일(2022)⁸⁾는 한류의 어원과 한류 변천에 관해 기존 연

7) 박영환, 「중국 지식인층의 문화한류 해석과 수용관점 추이 연구」, 『東亞人文學』, 제37집, 동아인문학회, 2016, 787쪽.

8) 손미·안남일, 「한류의 생성과 전개 양상-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제2권(2호), 2022, 75쪽.

구를 종합하여 한류는 한국 문화콘텐츠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콘텐츠’라는 언어로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향유되는 확산 과정을 포괄하는 현상이라고 하였고, 한류의 변천을 TV 시대, 인터넷 시대, OTT 시대로 구분하여 특징을 종합하였다. 특히 현재 OTT라는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인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즉, OTT 시대 한국 드라마는 스타 배우에 의존한 성공에서 탄탄한 스토리, 특정 문화를 뛰어넘는 소재와 정서 공감이 성공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동배(2023)⁹⁾는 중국에서 한류 수용의 시기를 젊은 층의 지식속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초기 단계(1997-2004), 고속 성장한 한류 콘텐츠가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게 된 저극적인 수용 단계(2005-2010),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중흥 단계(2010-2015), 한한령 이후 중국내 한국 문화콘텐츠의 위축 단계(2015-현재)로 구분하여 한류 발전 및 변천을 한국드라마, 케이팝(k-pop)의 수용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드라마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의 수용과 시청 패러다임이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중국에서의 한국 드라마 수용이 직면한 문제로 중국 정부의 전 방위적 규제에 따른 콘텐츠 수용의 한계와 함께 한국 드라마의 수용이 정서적 거부감이 없는 문화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수용되었다면 현재 중국에 확산된 반한류 정서가 향후 중국의 한류 수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국 대상의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다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반영한 한국만의 콘텐츠를 제작하

9) 이동배, 「중국 내 한류콘텐츠의 수용과정과 미래발전방안에 관한 고찰-드라마, K팝, 예능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3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1, 117쪽.

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중국 내부의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한류 및 한국드라마 수용에 관하여 한국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중국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미디어 플랫폼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한국 드라마 수용이 양국의 유사한 문화적 근접성으로 인해 친숙하기 때문에 정서적 공감을 얻게 되면서 인기를 얻은 반면, 현재 중국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성적, 객관적, 합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 중국이 문화 산업을 국가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가지는 내재된 문화패권주의적 관점에서의 한류 수용의 현재 양상을 지적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 내 꾸준히 이어져온 한류 역사만큼 중국 사회의 한류에 대한 인식과 평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변화된 사회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욕구 기반의 한국 드라마 수용과 인식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刘倩(2015)¹⁰⁾은 일본, 대만, 중국 본토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수용 특성을 FGI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본토에서 한류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 수용이 한류 제품 소비로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유행은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중국에서는 본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본토 대중문화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였다. 앞서 강필임 등의 분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 본토에

10) 刘倩, 「从东亚地区对比看韩流文化消费的多元性」, 『国外社会科学』, 第2期, 2015, p.28.

서는 중화사상에 기반한 문화 자긍심이 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阎俊茗(2016)¹¹⁾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 원인은 현실적 소재의 색다른 관점이 신선함과 공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국 시청자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중국과 유사한 정서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유행은 문화적 근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胡荣(2017)¹²⁾은 90년대 말 중국 정부의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외국 대중문화 수용을 허가하면서 한국드라마가 중국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중국 사회에서 그로 인한 한국형 소비문화 전파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한국 드라마가 구사하는 여성 캐릭터의 현대미, 세련미를 부각하는 서사 전략이 중국 소비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였다.

盛亭茵(2021)¹³⁾은 중국이 201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한국 드라마만큼 시청률이 높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는 문화적 근접성이 높으면서 소재와 주제의 혁신, 제작 기술의 우수성, 서사의 새로움 등이 중국 국내 드라마와 차별화된다고 하였으며, 검열, 상투적 전개와 제작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 드라마를 중국 드라마의 발전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11) 阎俊茗, 「韩剧的电视文化对我国电视文化的影响」, 『艺术品鉴』, 第1期, 2016, p.315.

12) 胡荣, 『韩剧叙事策略与消费文化传播』, 西北大学硕士论文, 2017, p.17.

13) 盛亭茵, 「韩剧生产特点对中国电视剧行业的启示」, 『中国产经』, 第22期, 2020, p.68.

尤达(2022)¹⁴⁾는 넷플릭스에 공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오징어게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 드라마의 해외 진출에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동서양의 문화 차원을 하나의 작품 안에서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 세계의 공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징어 게임>이 현실의 무거운 주제를 간결한 미학적 재현을 통해 문화 차원이 다른 동서양 모두 공감을 얻게 된 것은 새로운 방식의 문화 근접성의 실현이라고 분석하였다.

朱兆一(2023)¹⁵⁾는 한국 드라마가 국제화된 매커니즘에 주목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는 문화콘텐츠 플랫폼의 변화에 맞춰 '공진(共振)형 전파'와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에 적합한 서사 모델을 통해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재현한 문화 실천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보았다.

중국 학술계는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인기 요인으로 유사한 문화 정서를 배경으로 한국 드라마의 소재의 신선함, 주제 전달의 강렬함, 서사 전개의 새로움, 유연한 제작 방식, 배우 연기 등이 중국 국내 드라마와 차별화된 특징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중국 시청자가 한국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문화 전파에 영향을 주지만, 중국 시청자의 중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오히려 최근 중국 내 관심사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류의 세계화'와 글로벌

14) 尤达, 「简约美学与共振传播——韩剧《鱿鱼游戏》的传播力提升策略研究」, 『传媒观察』, 第2期, 2022, p.44.

15) 朱兆一, 「平台世界主义视域下的“韩流”国际化机制——基于韩剧的示例」, 『现代传播』, 45卷第2期, 2023, p.120.

영향력이 높아진 것에 주목하여 그 발전 모델을 ‘중국 드라마의 세계화’의 지표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연구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된 요인 중의 하나를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업 제작 방식으로 보고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반영하여 중국 미디어 플랫폼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 연구 방법으로서의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 네트워크

현대 사회에서 텍스트는 정보 획득의 중요한 대상이자 교류 수단이 되었다. IBM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 데이터의 80%가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¹⁶⁾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와 패턴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출현하였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해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문서의 단어, 구문, 패턴, 관계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¹⁷⁾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는 집단 내 개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보고 개체의 연결이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한다는 전

16) [Big Data and Analytics], <https://www.ibm.com/analytics/big-data-analytics>, (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17) 이유정, 『텍스트 마이닝 기반 한·중 관객의 영화 수용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7쪽.

제에서 출발한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거미줄처럼 서로 엮어 있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시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텍스트에 적용하여 단어를 개체 노드(node), 단어의 연결을 링크(link)로 보고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텍스트의 메시지의 내용, 어조 등을 언어의 의미에 따른 관계를 네트워크 구조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¹⁸⁾ 즉,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추출한 텍스트의 정보와 의미를 지식으로서 구조화, 추론, 시각화하는 데 유용하며 사회적 담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 연구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韩剧 黑暗荣耀)’로 수집된 텍스트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수집된 텍스트 문서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텍스트톰(Textom)에서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등 정제 과정을 거쳐 정형 데이터로 가공한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은 문장이나 대화 등 텍스트 문서에서 문자 혹은 단어의 출현 횟수 정도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기술 통계이다.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 문서에 나타난 문자와 단어의 출현 횟수를 보여주는 빈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어의 빈도 분산을 막고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제 과정에서 분석

18) 위의 논문, 19쪽.

19) 단어, 문자를 노드, 의미 연결을 링크로 보기 때문에 텍스트 네트워크(Text network)라고도 한다.

이정락 외,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출판부, 2022, 5쪽.

자가 기준을 정립하여 용어를 통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엄마’, ‘마미’, ‘어머니’를 ‘어머니’로 통일하는 것이다.²⁰⁾

TF-IDF는 빈도 분석이 단순히 단어의 출현 빈도만으로 문서 내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여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텍스트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신문 기사, 뉴스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여 텍스트 전체 성격을 ‘중국’으로 제한하고 빈도는 작지만 ‘중국’과 연결된 ‘경제’와 같은 다른 단어의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여 빈도는 작지만 중요한 ‘경제’라는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²¹⁾

N-gram은 빈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가 원래 자기 자리에 있던 순서가 무시된 채 출현 빈도에 의해 처리되어 단어가 위치에 의해 가지는 의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접한 단어들을 2개 혹은 그 이상으로 묶어 표현하는 순열 기법이다. 예를 들면 ‘상승’, ‘증가’ 단어는 ‘집값-상승’, ‘금리-상승’, ‘압력-증가’와 같이 지시하는 대상과 쌍으로 묶여서 빈도 순위로 추출될 경우, 텍스트 문서 전체에서 행간의 중요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²²⁾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노드(node)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네트워크 분석의 하나로, 집단 내 공유된 의미 간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방

20) 김수현 외, 「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BOK 경제연구』, 제18호, 한국은행, 2019, 32쪽.

21) 박종영·서충원, 「TF-IDF 가중치 모델을 이용한 주력시장의 변화특성 분석」, 『부동산학보』, 제63호, 한국부동산학회, 2015, 34쪽.

22) 김수현 외, 앞의 글, 37쪽.

법이다. 단어 노드 간의 연결에서 노드 크기, 노드 밀집, 연결 강도, 연결 개수 등을 통해서 전체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어 텍스트로 된 자료 내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의미의 창출, 확산, 이전, 소멸 등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분석은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등위성에 따른 계층적 군집화 과정을 통해 모든 노드가 군집으로 묶이게 된다. 단어-문서 행렬을 만들어 동시출현(co-occurrence)하는 정도를 이용해 단어 간 거리(distance)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쌍을 묶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군집을 구성하는 분석 방법으로 이 때 밀집된 단어의 군집은 하나의 큰 주제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제한다.²³⁾

상술한 바와 같이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방대한 양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제하여 유의미한 패턴, 정보를 도출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텍스톰(Textom) 플랫폼에서 형태소 분석 등 정제 과정과 텍스트 마이닝 분석 과정을 수행하고 UCINET 6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의미 네트워크와 CONCOR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흐름은 다음 <표 1>과 같다.

23)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에서는 LDA와 같은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토픽을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CINET6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어 간의 상관 계수에 따른 구조적 등위성에 따라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단어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유사성에 따라 군집으로 공간 배치하는 CONCOR 분석을 활용하여 단어 간 의미 패턴과 군집(주제군)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곽기영, 『소셜 네트워크 분석-제2판』, 청람, 2017, 355쪽.

〈표 1〉 연구 흐름 구성

단계	내 용
1	수집 채널 : 중국 포털 바이두(百度) 수집 키워드 : 한국드라마 〈더 글로리〉 (韩剧 黑暗荣耀)
2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시각화 단어 빈도, TF-IDF, N-gram, Word Cloud
3	의미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4	CONCOR 군집 분석 Dendrogram, 주제군 분석

3. 중국의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한 인식

2022년 12월 30일, 2023년 3월 10일 2회로 나누어 넷플릭스가 공개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는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에 화제의 드라마가 되었다.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김은숙 작가의 시나리오와 유명 PD인 안길호 감독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18년 간 복수를 준비한 피해자의 복수 실행을 주요 서사로 한다. 〈더 글로리〉는 기존 한국 드라마와 확연히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불러왔다. 특히 〈더 글로리〉 드라마를 계기로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의 학교 폭력 폭로와 사과가 이어지며 사회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다.²⁴⁾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 〈더 글

24) 허미담, 「'더 글로리' 열풍에 '학교폭력 폭로' 쏟아지는 태국」, 『아시아경제』, 2023년 1월 10일(2023년 5월 20일)

로리)에 대한 시청 후기와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²⁵⁾

이 연구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한국드라마 <더 글로리>(韩剧 黑暗荣耀)’를 키워드로 텍스트 문서를 수집하여 중국 내 한국 드라마와 <더 글로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1) 텍스트 마이닝 지표와 시각화

(1) 단어 빈도, TF-IDF, N-gram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한국드라마 <더 글로리>(韩剧 黑暗荣耀)’ 키워드로 수집된 문서는 총 986개이었다. 그 중 중복된 문서를 제외하고 총 758개 문서를 선정하여 텍스트에서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유사 단어 통일 등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정제 데이터에는 총 2,876개 단어가 나타났으며, 그 중 빈도수와 가중치에 따라 선정된 상위 40개 단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단어 빈도와 TF-IDF 상위 40개

순위	단어 빈도		TF-IDF	
	단어	빈도	단어	가중치
1	黑暗荣耀 (글로리)	193	黑暗荣耀 (글로리)	81.8
2	宋慧乔 (송혜교)	135	宋慧乔 (송혜교)	80.2
3	韩剧 (한국드라마)	107	韩剧 (한국 드라마)	76.2
4	校园暴力 (학교폭력)	102	校园暴力 (학교폭력)	74.0
5	霸凌 (집단폭력)	98	霸凌 (집단폭력)	62.4
6	奈飞 (넷플릭스)	87	爽剧 (통쾌한 드라마)	62.2
7	文东恩 (문동은)	75	新剧 (새 드라마)	60.7
8	爽剧 (통쾌한 드라마)	65	奈飞 (넷플릭스)	59.5
9	观众 (시청자)	60	文东恩 (문동은)	55.5
10	加害者 (가해자)	57	观众 (시청자)	49.9
11	黑化 (흑화)	50	电视剧 (드라마)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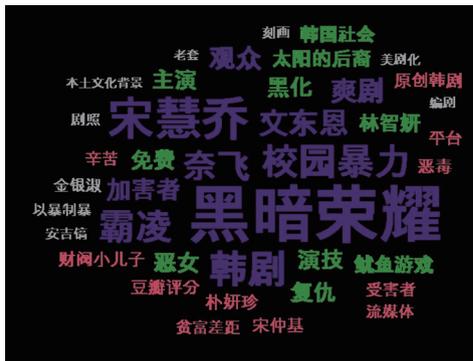
25) 최문정, 「‘더 글로리’ 몰래 훔쳐보다 서버 멈춘 중국…“도둑시청 습관화”」, 『한겨레』, 2023년 3월 14일(2023년 5월 20일)

12	恶女(악녀)	50	上线(인터넷 공개)	40.6
13	演技(연기)	50	免费(무료)	39.1
14	免费(무료)	48	流媒体(OTT)	39.1
15	主演(주연)	47	加害者(가해자)	36.9
16	复仇(복수)	47	理由(이유)	36.1
17	林智妍(임지연)	40	豆瓣评分(도우반 평점)	36.1
18	鱿鱼游戏(오징어게임)	38	林智妍(임지연)	36.1
19	太阳的后裔(태양의 후예)	38	韩国社会(한국사회)	36.1
20	韩国社会(한국사회)	34	题材(소재)	35.9
21	朴妍珍(박연진)	31	黑化(흑화)	35.2
22	宋仲基(송중기)	30	恶女(악녀)	33.3
23	豆瓣评分(도우반 평점)	30	朴妍珍(박연진)	33.3
24	恶毒(악독하다)	29	严重(심각하다)	31.8
25	财阀小儿子 (재벌집 막내아들)	29	复仇(복수)	30.5
26	原创韩剧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28	宋仲基(송중기)	30.5
27	辛苦(고생하다)	27	编剧(시나리오)	30.5
28	平台(플랫폼)	27	美剧化(미국드라마화)	29.3
29	受害者(피해자)	26	本土文化背景 (자국 문화배경)	28.9
30	贫富差距(빈부격차)	25	老套(상투적)	28.9
31	金银淑(김은숙)	24	情节(스토리)	27.5
32	流媒体(OTT)	24	敢拍(과감한 제작)	27.0
33	剧照(스틸컷)	20	金银淑(김은숙)	27.0
34	以暴制暴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다)	19	原创韩剧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26.8
35	安吉镐(안길호)	17	剧情(줄거리)	26.1
36	刻画(그리다)	17	女人(여인)	25.1
37	编剧(시나리오)	15	以暴制暴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다)	25.1
38	美剧化(미국드라마화)	15	安吉镐(안길호)	25.1
39	本土文化背景(자국 문화배경)	14	贫富差距(빈부격차)	25.1
40	老套(상투적)	12	刻画(그리다)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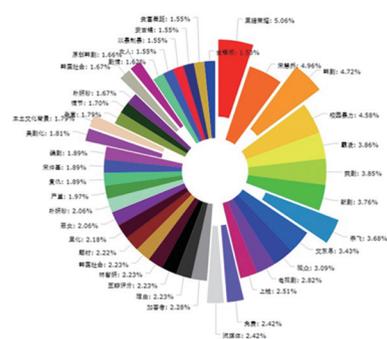
수집된 텍스트에서 출현 빈도수에 따라 추출한 단어빈도 상위에는 ‘글로리’, ‘송혜교’, ‘한국드라마’, ‘학교폭력’, ‘집단폭력’, ‘넷플릭스’, ‘문동은’, ‘통쾌한 드라마’, ‘시청자’, ‘가해자’, ‘흑화’, ‘복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청자는 <더 글로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한국 배우 송혜교가 흑화한 주인공 문동은이 가해자 집단에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 ‘통쾌한 드라마’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오징어 게임’, ‘태양의 후예’, ‘송중기’, ‘도우반 평점’, ‘재벌집 막내아들’ 순의 단어 빈도에서 중국 시청자는 <더 글로리>의 미국 플랫폼 넷플릭스 공개를 2019년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영향력과 이슈를 함께 언급하였고, 2016년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동시 방영된 <태양의 후예> 드라마의 두 주연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더 글로리>와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 대결을 펼쳤으며, ‘도우반 평점’의 시청 후기에서 <더 글로리>의 송혜교의 열연이 승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문서에서 출현 빈도 대비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TF-IDF 값이 높은 상위 40개 단어는 주로 단어빈도가 높은 단어가 TF-IDF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단어 빈도와 TF-IDF 순위를 비교했을 때, ‘통쾌한 드라마’, ‘인터넷 공개’, ‘OTT’, ‘이유’, ‘도우반 평점’, ‘한국사회’, ‘시나리오’, ‘미국드라마화’, ‘자국 문화배경’, ‘상투적’, ‘스토리’, ‘과감한 제작’ 단어는 출현 빈도에 비해 TF-IDF 값이 높게 나타난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시청자는 <더 글로리>가 기존의 복수 장르 드라마와 다르게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가해 집단을 응징하는 새로운 서사 구조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미국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것이 세계적 인기를 얻게 된 이유로 보고 있었다. 중국 시청자는 현실의 민감한 소재와 주제를 과감하게 제작하는 한국 드라마를 자국 문화 배경의 우수한 드라마로 평가하면서 향후 넷플릭스를 비롯한 미국 플랫폼에 의존하는 한국 드라마의 ‘미국 드라마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단어 빈도와 TF-IDF 상위 40개 단어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와 파이형 그래프는 다음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그림 2] <더 글로리> 단어 빈도 워드클라우드



[그림 3] <더 글로리> TF-IDF 파이형 그래프

N-gram은 단어 연관성 분석(Term Association Analysis)으로 인접한 단어들을 2개 이상으로 묶어 표현하는 기법으로 텍스트의 의미 파악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 포털에서 수집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문서를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추출된 N-gram 상위 40개 단어 연결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N-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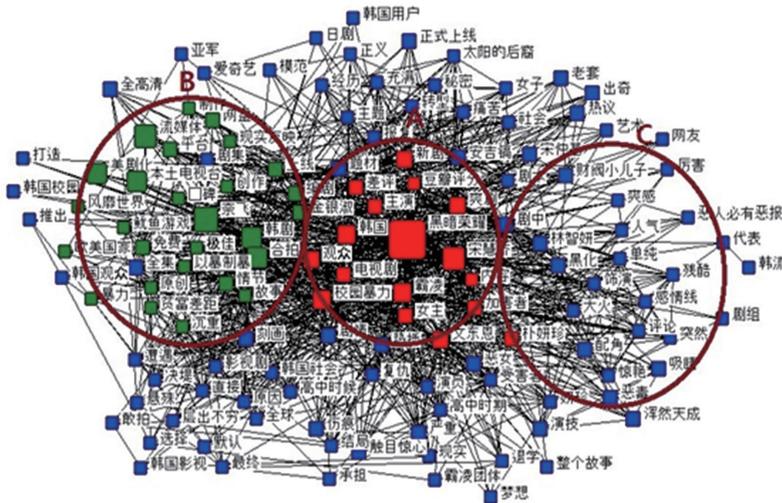
	단어 1	단어 2	빈도
1	韩剧(한국드라마)	黑暗荣耀(글로리)	68
2	黑暗荣耀(글로리)	宋慧乔(송혜교)	51
3	校园暴力(학교폭력)	霸凌(집단폭력)	51
4	爽剧(통쾌한 드라마)	黑暗荣耀(글로리)	45
5	登顶全球(글로벌 정상)	奈飞(넷플릭스)	33
6	惨绝人寰(비극, 참상)	霸凌(집단폭력)	30
7	宋慧乔(송혜교)	黑化(흑화)	30
8	霸凌(집단폭력)	黑暗荣耀(글로리)	30
9	敢拍(과감한 제작)	韩剧(한국 드라마)	30
10	霸凌(집단폭력)	黑暗荣耀(글로리)	27
11	韩国(한국)	爽剧(통쾌한 드라마)	27
12	巴掌(뺨때리다)	恶女(악녀)	27
13	演技(연기)	浑然天成(자연스럽다)	24
14	惨绝人寰(참상)	霸凌(집단폭력)	24
15	奈飞(넷플릭스)	美剧化(미국드라마화)	24
16	恶女(악녀)	演技(연기)	24
17	贫富差距(빈부격차)	黑暗荣耀(글로리)	24
18	女人(여인)	巴掌(뺨때리다)	21
19	文东恩(문동은)	惨绝人寰(참상)	21
20	韩国社会(한국사회)	矛盾根源(모순 근원)	21
21	黑化(흑화)	辛苦(고생스럽다)	20
22	严重(심각하다)	校园暴力(학교폭력)	20
23	新剧(새로운 드라마)	黑暗荣耀(글로리)	20
24	施暴对象(가해 대상)	重要原因(주요원인)	19
25	宋仲基(송중기)	财阀小儿子(재벌집 막내아들)	19
26	黑暗荣耀(글로리)	剧照(스틸컷)	19
27	上线(공개)	奈飞(넷플릭스)	19
28	老套(상투적)	黑暗荣耀(글로리)	19
29	黑暗荣耀(글로리)	登顶全球(글로벌 정상)	18
30	观众(시청자)	差评(비판적 후기)	18
31	黑暗荣耀(글로리)	免费(무료)	18
32	原创(오리지널)	韩剧(한국 드라마)	17
33	有点像(비슷하다)	美剧(미국 드라마)	17

34	刺激内容(자극적 내용)	温情味道(온정)	17
35	奈飞(넷플릭스)	个性化算法 (개별맞춤 알고리즘)	15
36	校园暴力(학교폭력)	依然(여전히)	15
37	用户数(사용자 수)	黑暗荣耀(글로리)	15
38	宅家看剧(재택 드라마 시청)	机会迅速(빠른 기회)	15
39	改变不了(바꿀 수 없다)	真实(진실)	14
40	更加(더하다)	美剧化(미국드라마화)	14

위 <표 3> N-gram을 보면, ‘한국드라마-글로리’, ‘글로리-송혜교’, ‘학교폭력-집단폭력’, ‘통쾌한 드라마-글로리’, ‘글로벌 정상-넷플릭스’, ‘참상-집단폭력’, ‘송혜교-흑화’ 순으로 단어 연결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단어 빈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시청자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송혜교 배우가 복수를 위해 흑화 연기를 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글로벌 정상에 올랐으며, 드라마가 학교 폭력의 참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과감한 제작-한국 드라마’, ‘한국-통쾌한 드라마’, ‘뺨때리다-악녀’, ‘연기-자연스럽다’ 단어 연결에서 중국 시청자는 드라마에서 가해자 역할 배우들의 연기가 자연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넷플릭스-미국 드라마화’, ‘한국사회-모순근원’, ‘심각하다-학교폭력’ 단어 연결에서 중국 시청자는 ‘학교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모순이자 갈등으로 보았으며, 이를 과감하게 소재로 활용하여 제작한 한국 드라마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택 시청 기회와 넷플릭스 라는 미국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이며, 드라마의 재현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을 볼 때 한국 드라마가 점차 ‘미국 드라마화’ 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2) 의미 네트워크와 CONCOR분석

텍스트의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는 단어 노드의 중심화(Centralization)를 기준으로 노드 간의 연결 밀집, 근접, 강도 등을 네트워크로 시각화할 수 있다. 정제 과정을 거친 수집된 중국 텍스트의 정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툼에서 상위 135개 단어를 선정하여 행렬 매트릭스 데이터를 구성하고 UCINET 6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중심성 값을 적용하여 시각화한 의미 네트워크는 다음 [그림 4]와 같다.²⁶⁾



[그림 4]한국 드라마<더 글로리>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 시각화

위 [그림 4]는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을 반영한 의미 네트워크이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있는 A는 텍스트에서 가장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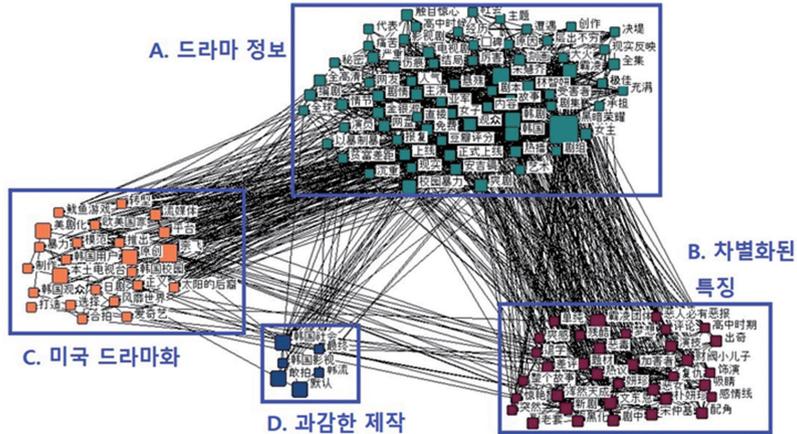
26) 텍스트마이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제 데이터에서 행렬 매트릭스를 구성하면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중심성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중심성 값은 노드 간의 연결, 근접, 매개, 강도가 높은 노드와의 연결을 기준으로 각각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으로 산출된다. 이 연구에서는 분량 상 중심성 값을 적용한 시각화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빈도, 연결, 근접을 보이는 노드가 밀집해 있다. 가장 많은 빈도와 연결을 보이는 ‘글로리’ 노드를 중심으로 ‘송혜교’, ‘학교폭력’, ‘주연’, ‘새로운 드라마’, ‘시청자’, ‘통쾌한 드라마’ 등이 밀집 연결되어 있다. 중국 시청자는 드라마 글로리가 새로운 소재, 스타 배우를 내세워 시청자에게 통쾌감을 주는 드라마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는 가장 많은 밀집과 연결 노드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일정 단어가 밀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로 표시된 지점에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린다’, ‘현실 반영’, ‘빈부격차’, ‘스토리’, ‘한국 드라마’, ‘무료’ 등이 연결되어 있다. 중국 시청자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한국 드라마로서 <오징어 게임>과 같이 빈부 격차 등 현실을 반영한 무거운 주제를 새로운 서사로 그려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로 표시된 지점에는 ‘임지연’, ‘박연진’, ‘극중’, ‘요염하다’, ‘배역’, ‘악독하다’, ‘눈길 끌다’, ‘인기’, ‘통쾌감’, ‘잔혹하다’ 등이 있다. 중국 시청자는 드라마에서 가해자 역할을 한 배우의 연기를 높게 평가했으며, 복수 서사를 통한 통쾌함에 많은 공감을 하였다. 다만 드라마 전개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은 서사와 무관할 뿐 아니라 지나치다고 평가하였다.

의미 네트워크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화된 노드의 밀집과 연결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비해 CONCOR 분석은 단어 간의 상관 관계에 의해 산출된 구조적 등위성에 따라 단어 간의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전체 텍스트에 형성되는 뚜렷한 토픽(주제)을 파악할 수 있다. 정제 과정을 거친 텍스트 데이터에서 빈도와 TF-IDF를 반영한 상위 135개 단어로 행렬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UCINET 6

에서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드가 군집별로 밀집하여 주제군을 형성한 CONCOR 분석의 시각화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CONCOR 군집 분석 시각화

위 [그림 5]와 같이 드라마 <더 글로리>에 관한 중국 문서의 정제된 텍스트 데이터의 행렬 매트릭스를 CONCOR 군집 분석한 결과, 67개 노드가 같은 군집에 밀집된 대형 A군집과 노드가 37개의 B군집, 24개의 C군집 2개의 중형 군집, 노드가 6개의 소형 D군집이 밀집 형성되었다. 각 군집 별로 밀집된 노드의 의미 연결을 통해 군집이 어떤 의미 주제로 밀집되어있는지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CONCOR 분석에 나타난 주제군과 대표 노드

군집	A	B	C	D
군집 주제	〈더 글로리〉 정보	〈더 글로리〉의 차별화 특징	한국 드라마의 미국 드라마화	과감한 한국 드라마
노드 개수	68	37	24	6
대표 노드	黑暗荣耀(글로리) 宋慧乔(송혜교) 韩剧(한국드라마) 韩国(한국) 校园暴力 (학교폭력) 霸凌(집단폭력) 爽剧 (통쾌 드라마) 观众(시청자) 全集(전체) 林智妍(임지연) 女主(여자주인공) 情节(스토리) 豆瓣评分(평점) 剧情(줄거리) 受害者(피해자) 金银淑(김은숙) 安吉镐(안길호) 刻画(그리다) 以暴制暴 (폭력으로 다스리다) 编剧(시나리오) 贫富差距 (빈부격차) 现实反映 (현실반영) 社会主题 (사회주제) 触目惊心 (몸서리치다) 免费(무료) 正式上线 (정식오픈)	文东恩(문동은) 新剧(새 드라마) 加害者(가해자) 黑化(흑화) 题材(소재) 恶女(악녀) 演技(연기) 配角(조연) 复仇(복수) 差评(비판후기) 朴妍珍(박연진) 宋仲基(송중기) 浑然天成 (자연스럽다) 剧中(극중) 恶毒(악독하다) 财阀小儿子 (재벌집막내아들) 老套(상투적) 感情线(감정선) 恶人必有恶报 (악인은 반드시 벌받다) 霸凌团体 (집단폭력 그룹) 爽感(통쾌함) 残酷(잔혹하다)	奈飞(넷플릭스) 平台(플랫폼) 流媒体(OTT) 原创(오리지널) 风靡世界 (세계적 유행) 韩国观众 (한국 시청자) 合拍(합작) 转型(바꾸다) 鱿鱼游戏 (오징어게임) 太阳的后裔 (태양의 후예) 爱奇艺(아이치이) 欧美国 (유럽 북미) 韩国用户 (한국 유저) 美剧化 (미국드라마화) 退出(퇴출) 本土电视台 (자국 방송국) 制作(제작) 模范(모범) 日剧(일본드라마) 选择(선택)	韩国社会 (한국사회) 韩国影视 (한국 영상콘텐츠) 敢拍 (과감한 제작) 最终(최종) 韩流(한류) 默认 (묵인하다)

텍스트에서 가장 큰 A군집은 주로 <더 글로리>에 관한 ‘드라마 정보’ 연관 단어가 밀집 연결되어 주제군을 형성하고 있다. 드라마를 소개하는 ‘글로리’, ‘한국드라마’와 같은 노드와 ‘학교 폭력’, ‘집단 폭력’, ‘송혜교’, ‘임지연’, ‘여자 주인공’, ‘줄거리’와 같은 드라마의 소재, 스토리 구조, 주요 배우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노드가 밀집해 있다. ‘폭력으로 다스리다’, ‘빈부격차’, ‘현실반영’, ‘사회주제’ 노드의 밀집으로 볼 때, 이미 많은 팬덤을 지닌 스타 작가 김은숙의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었고, 드라마가 학교 폭력이라는 현실 반영 소재 뿐만 아니라 극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상과 배경을 통해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보여준다고 인식하였다.

B군집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차별화된 특징’을 의미하는 노드가 밀집 연결되어 있다. ‘문동은’, ‘새 드라마’, ‘가해자’, ‘흑화’, ‘악녀’, ‘복수’, ‘악인은 벌을 받는다’, ‘통쾌함’, ‘잔혹하다’, ‘상투적’, ‘감정선’ 등의 노드의 연결을 통해 드라마 <더 글로리>가 기존의 한국 드라마 중 복수 드라마가 보여주는 연약한 피해자가 정의의 조력자에 의지하거나 타인에 의해 복수에 성공하거나 보상을 받는 구조를 탈피하여 피해자가 직접 흑화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하는 새로운 서사를 통해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보여주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C군집에는 ‘한국 드라마의 미국 드라마화’ 주제군을 의미하는 노드가 밀집 연결되어 있다. ‘넷플릭스’, ‘플랫폼’, ‘OTT’, ‘오리지널’, ‘세계적 유행’, ‘합작’, ‘한국 시청자’, ‘바꾸다’, ‘오징어게임’, ‘태양의 후예’, ‘아이치이’, ‘유럽 북미’, ‘미국 드라마화’ 등 노드가 밀집 연결되어 있다. 중국 시청자는 넷플릭스 플랫폼에 공개된 한

국 드라마 <더 글로리>가 기존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유행과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은 미국 중심의 플랫폼을 이용한 공개와 합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더 글로리>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열린 결말 등의 서사 구조는 한국 드라마 고유의 매력이 점차 퇴색되면서 점차 ‘미국 드라마화’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태양의 후예>에 투자했던 중국 플랫폼 아이치이가 제작에 투자하고 동시 방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드라마를 모델로 삼아 중국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D군집은 가장 작은 군집으로 ‘과감한 한국 드라마’ 주제를 의미하는 노드가 밀집 연결되어 있다. ‘한국 사회’, ‘한국 영상콘텐츠’, ‘과감한 제작’, ‘최종’, ‘한류’, ‘묵인하다’ 노드가 밀집되어 있다. 중국 시청자는 민감한 주제와 현실을 반영하는 소재를 활용한 과감한 제작을 한국 드라마의 주요 특징이며 그로 인해 한국 영상 콘텐츠가 ‘한류’로서 유행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는 중국의 드라마 제작 현실이 당국의 규제와 검열이 최우선시 되는 현실을 반영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중국에서 한류의 시작은 ‘한국 드라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시청자는 한국 드라마의 변화를 오랜 기간 경험하였다. OTT 시대에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인기에 이어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더 글로리>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이

어졌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키워드로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국 내 한국 드라마 인식을 탐색하는 것은 중국의 한국 드라마 수용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제작자에게 한국 드라마의 해외 진출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의미 네트워크(Semantic Network)와 CONCOR 군집 분석 결과, 중국 시청자의 인식은 크게 <더 글로리>에 대한 인식과 <더 글로리>를 통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시청자는 중국에서 인지도 높은 스타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중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배우 송혜교가 주연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배우의 기존 드라마와 다른 흑화된 배역에 관심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시에 방영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배우 송중기와 연기를 대결로 보고 비교, 악역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 등 출연 배우진의 연기, 연예 가십 관련 관심과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중국 시청자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기존 한국 드라마와 비교하여 같은 복수극 장르 드라마 중에서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주는 새로운 유형의 드라마라고 인식하였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피해자가 따뜻한 온정 혹은 타인의 대리응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전통적인 복수 서사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당한 만큼 처절하게 복수하는 내용 전개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인기 요인이라고 인식하였

다. 셋째, 중국 시청자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 폭력의 배경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사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빈부 격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와 무소불위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가해자는 단순한 폭력 관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였다. 중국 시청자는 드라마의 배경과 묘사를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과 일치해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식은 ‘과감한 제작’과 ‘현실 반영’ 시나리오를 주요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첫째, 드라마 <더 글로리>의 세계적 인기는 한국 드라마가 가지는 민감한 현실 문제를 소재로 한 감각적인 시나리오와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과감한 제작과 방영을 매력적인 특징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중국 드라마가 사전 검열, 규제 때문에 소재, 내용이 진부하고 상투적이라는 현실 인식과 맥락을 같이하며 중국 드라마가 배워야 할 점으로 꼽았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 한국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인식이다. 중국은 <더 글로리>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원인으로 새로운 소재와 재미와 더불어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공개와 제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공개되고 있고, 플랫폼과 합작한 제작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중국 시청자는 그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가 가지는 고유의 미적 특징과 재미가 퇴색되고 점차 플랫폼의 요구에 맞춰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미국드라마화’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 드라마를 비롯한 콘텐츠

츠의 한국적인 특징은 소재를 재미있게 독특하게 가공해내는 힘에 있다. 중국 시청자는 그 힘이 기존에는 한국 드라마의 국내 제작과 기술이라고 평가하였다. OTT 시대 글로벌 진출을 위해 보편적인 취향에 맞춘 이야기와 제작 방식으로의 변화를 한국적인 것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인식과 시각은 한류의 세계화에 생각해 볼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이정락 외 지음,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출판부, 2022.

□ 참고논문

강필임 외, 「중국의 한국 드라마 연구와 수용 - '별에서 온 그대' 관련 중국학술논문 내용분석」, 『中國學報』, 제74집, 한국중국학회, 2015, 205-227쪽.

박영환, 「중국 지식인층의 문화한류 해석과 수용관점 추이 연구」, 『東亞人文學』, 제37집, 동아인문학회, 2016, 787-816쪽.

박종영·서충원, 「TF-IDF 가중치 모델을 이용한 주택시장의 변화특성 분석」, 『부동산학보』, 제63호, 한국부동산학회, 2015, 46-58쪽.

손미·안남일, 「한류의 생성과 전개 양상-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제2권(2호), 문화영토연구원, 2022, 63-85쪽.

이동배, 「중국 내 한류콘텐츠의 수용과정과 미래발전방안에 관한 고찰-드라마, K팝, 예능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3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1, 117-150쪽.

이유정, 『텍스트 마이닝 기반 한·중 관객의 영화 수용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刘倩, 「从东亚地区对比看韩流文化消费的多元性」, 『国外社会科学』, 第2期, 2015, p28-33.

阎俊茗, 「韩剧的电视文化对我国电视文化的影响」, 『艺术品鉴』, 第1期, 2016, p313-316.

胡荣, 『韩剧叙事策略与消费文化传播』, 西北大学硕士论文, 2017.

盛亭茵, 「韩剧生产特点对中国电视剧行业的启示」, 『中国产经』, 第22期, 2020, p67-70.

尤达, 「简约美学与共振传播——韩剧《鱿鱼游戏》的传播力提升策略研究」, 『传媒观察』, 第2期, 2022, p44-51.

朱兆一, 「平台世界主义视域下的“韩流”国际化机制——基于韩剧的示例」, 『现代传播』, 45卷第2期, 2023, p120-127.

□ 기타자료

김수현 외, 「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BOK 경제연구』, 제18호, 한국은행, 2019.

이예지, 「또 ‘더글로리’ 도둑 시청한 중…평점만 15만 개」, 『동아닷컴』, 2023년 3월 14일 (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최문정, 「‘더 글로리’ 몰래 훔쳐보다 서버 멈춘 중국…“도둑시청 습관화”」, 『한겨레』, 2023년 3월 14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허미담, 「‘더 글로리’ 열풍에 ‘학교폭력 폭로’ 쏟아지는 태국」, 『아시아경제』, 2023년 1월 10일(검색일자: 2023년 5월 20일)

바이두(百度), www.baidu.com

텍스톰(Textom), www.textom.com

IBM, <https://www.ibm.com>

ABSTRACT

Analysis of Korean Drama Recognition in China Using Semantic Network - Focusing on Netflix <The Glory>

Lee Yoojung²⁷⁾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inese viewers' perceptions of Korean dramas, including Netflix's original <The Glor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Glory>, which was released on the OTT platform in December 2022 and March 2023, is a drama that was selected as the top 10 of Netflix's global list, showing its popularity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method, material, content, and main actors of the drama. On the other hand, despite China's current lack of Netflix services, the original drama "Glory" is a highly popular Korean drama in China.

In Baidu, China's largest portal, related articles were collected under the keyword of "Korean Drama <Glory>"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ur main topic groups were formed. First, it is 'drama information'. It introduced overall information on the drama "Glory," including the main actor, school violence material, story, theme, director, and screenwriter. Second, it is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drama'. Unlike existing school violence dramas and movies, "Glory" recognized that the victim

27) Hannam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directly stepped up and punished the perpetrator, making viewers feel plural catharsis and exhilaration. In addition, it was evaluated that it shockingly depicted the perpetrator's evil deeds and the victim's misery. Third, it is 'the American drama of Korean dramas'. Glory is an original drama produced by Netflix, a global OTT platform. Chinese viewers recognized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Korean dramas are fading and becoming a provocative and violent American drama. Fourth, it is 'Bold Korean Drama'. Chinese viewers recognized the bold production attitude of Korean dramas 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as the subject of the Korean Wave.

In the new Korean Wave era, where the world enjoys Korean dramas in real time through the OTT platform, Chinese viewers praised the fresh material, fun, theme consciousness, and bold production of Korean dramas, but they were concerned that they tended to become American dramas. In line with globalization, Chinese viewers' perception of the global-oriented drama production trend is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dramas are fading, which is an implication for Korean producers to refer to.

Keywords : <Glory>, Korean drama, reality reflection, Netflix, American drama.

이 유 정

전 자 우 편 : ecc0921@hanmail.net

논문 접수일 : 06월 01일

심사 완료일 : 06월 18일

게재 확정일 : 06월 21일

문화어를 통한 외국인 학습자¹⁾ 문화교육 방안 연구

정원기²⁾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반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화 교육을 제시한 연구 논문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를 교육할 때 다양한 자료를 제재로 활용하여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어를 통한 문화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에 대한 개념과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등급별 문화 교육 목표에 따라 '이해-적용-생산-평가'의 4가지 단계를 통해 문화어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단계 '이해-적용-생산-평가'의 단계는 학습자의 이해도와 수행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고 역행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문화 항목에 대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나 담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쓴 논문이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문화어, 문화교육 목표, 단계별 문화교육

1) 일반목적 외국인 학습자를 지칭함.

2)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1. 서론

본 논문은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교육은 최근 몇 년을 사이에 두 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요가 늘고 있고 그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도 단순히 언어의 원리나 문법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제도 등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학습자들도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 한국어를 통해 좀 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논의와 교육적 핵심 논의들이 문법과 기능 중심에서 의사소통, 담화, 문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에서 오는 전환적 자세라기보다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과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³⁾

3) 김수진,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연구-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0권(제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31-58쪽.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적 사고방식과 한국 문화의 학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교육 방법이 강조되고, 한국 문화의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수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문화라는 것이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 교육은 습득이 아닌 학습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 논문은 문화 교육에 대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어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2. 문화의 개념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문화의 개념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정립하거나 범주화하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문화는 원래 인류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린 ‘문화’에 대한 개념은 대략 300여 가지가 된다. 이러한 논의에서 최대 공약수로 등장하는, 즉 거의 모든 논자가 동의하는 개념은 ‘공동체’, ‘역사성’, ‘다른 공동체와의 차별성’, ‘생활양식’, ‘가치관 또는 관념’ 등이며 좀 더 넓혀갈 때에는 ‘법률’, ‘제도’, ‘문물’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외국어 교육의 문화 개념⁴⁾

Tylor(1981)	문화란 사회성원으로서는 인간이 획득한 모든 지식과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에 대한 능력과 습관의 복합체이며, 인간의 유형화된 생활양식
Geertz(1973)	문화는 단지 상징적 형태로 표현되는 의미의 체계(System of meaning)라 하였다.
Brooks(1975)	Brooks는 문화를 big C(culture)와 little c(culture)로 구분하였다. 먼저 big C(culture)란 고전 음악, 무용, 문학, 예술, 건축, 정치, 경제 제도 등의 문화적 관례를 일컫는 것이며, little c(culture)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 태도, 신념, 가치 체계 등 집단이 공유하는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Brown(2007)	문화란 우리가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안에 존재하며 서로를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며, 또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집단의 관습이나 이념, 기술, 예술, 기구 등으로 정의된다고 보았다
Lusting & Koester(1999)	문화는 다른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으로 간주하며 타문화와의 구성원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과제를 수행하고 관계를 이루며 유지시켜 나가는 능력

이들 문화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정리해보면 문화란 인간 삶의 총체물이라는 주장과 인간생활의 양식, 상징화된 의미의 체계, 어떤 사회적 힘, 혹은 스스로 변화하는 힘을 가진 존재, 구체적 실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연구사들을 살펴보면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보통 문화를 언어와의 상관성 또는 효율성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원기, 「소설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5쪽, 재인용.

이렇게 문화를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의 개념적 내용의 특수한 면을 강조하거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획득한 지식, 즉 한 집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집단에 의해 습득 또는 학습된 행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의 개념⁵⁾

	언어문화	일반 문화(문화 일반)
박갑수(1999)	언어에 의해 형성된 문화	언어의 배경으로서의 문화
민현식(2003)	모든 문화 중에 언어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문화 현상만을 가리키는 제한적 정의 방식	모든 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가리키는 포괄적 정의 방식
김대행(2003)	언어가 현현되는 형식의 단위에 따른 분류	언어에 현현되는 내용에 따른 구분
조항록(2004)	언어가 투영된 문화적 함의	언어를 통해 산출되는 문화적 양상
김종철(2005)	언어로 이루어지는 문화	언어가 다루는 문화
권오경(2009)	언어 자체에 내재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언어활동에 필요한 배경지식으로서의 문화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와 한국어교육용 통합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읽고, 듣기, 쓰고, 말하는 한국어교육의 네 가지 기능으

5) 위의 논문, 15쪽, 재인용.

로 교육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통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교재 및 한국어교육용 통합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들은 설명적 텍스트로서 정보 전달과 사실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해당 단원의 주제 및 기능과 맞는 않는 것들도 있고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의 명확한 범주가 없이 범주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통일되지 않은 범주화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혼란만 가중 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통일된 문화 항목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문화 교육의 목표

외국인 학습자에게 올바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의 목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 교육의 목표를 언급하였는데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목표에 대한 연구로는 황인교(2008)가 있다. 황인교(2008)는 국내 대학 부설 기관 한국어학당의 문화 교육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황인교(2008)의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⁶⁾

급	목 표	정리
1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	기본 생활 적응 및 문화 이해
2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고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급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한국의 예절과 풍습)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문화 수용
4급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한국의 풍습, 미신, 속담 등)를 이해한다.	
5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적 소개 및 설명 문화 소통
6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의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	

황인교(2008)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외국인 학습자 등급에 따라 초급에서는 기본적인 한국 생활의 적응 및 간단한 한국 문화의 이해, 중급에서는 한국 문화의 수용, 고급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전문적 소개와 설명,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소통으로 나누었다.

곽지영 외(2007)⁷⁾에서는 황인교(2008)에서 제시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급별 교수요목 설계의 예를 제시하였다. 급별 교수요목에서 항목 설정을 자모 체계, 발음, 어휘·문법, 의사소통 능력, 사회 문화적 능력 등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문화 영역

6)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의 실제」, 경희대학교 비교문화 연구소 가을학술대회, 2008, 20쪽.

7) 곽지영 외,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325쪽.

과 관련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광지역 외(2007)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 급별 문화 영역 학습 목표

급	사회 문화적 능력
1급	<p>한국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말 중에 ‘어디 가요?’, ‘결혼했습니까?’ 등과 같은 개인적 질문을 친숙함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가족관계 어휘 구별 3)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대 높임, 자기 낮춤 4) 관계에 따른 호칭 5) 의식주 6) 상황에 따른 표현: 공식적 표현, 문어체 등.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다. 2)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화적인 내용을 언어 학습의 주제와 연결해서 배운다. 예) 식사습관, 교통 문화, 물건 사기 등.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간단히 소개할 수 있다. ② 일상생활에서 한국의 예절과 풍습 등을 소개할 수 있다. ③ 한국 풍습, 예절 등에 대한 지식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적인 일을 어렵게 처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에게 필요한 공적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②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공공장소에 문의할 수 있다.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적인 것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직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한다. 3) 전화 대화나 방송의 알림, 방송 보도 등을 이해할 수 있다. 4) 직설적이고 개인적 흥미 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텍스트라면 이를 이해하고 그 텍스트로부터 다음 단계의 진술이나 주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5) 일상적 사건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실용문, 일상적 주제에 대한 간단한 글 쓰기를 할 수 있다. 6) 자신의 학력, 경력 등 자신의 신상 자료의 요약을 쓸 수 있다.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양적인 내용의 담화가 가능하고 매우 전문적 주제가 아니라면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교환 등이 가능하다. 2) 한국에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 3)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4)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공공 기관에 자신의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을 호소할 수 있다. 5)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텍스트 생산이 가능하다. 2) 한국 대학생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내용에 대한 집단적인 토론 및 사회자 역할을 할 수 있다. 3) 한국에서 조직체 및 기업의 운영이 가능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시 및 비판, 토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재판, 소송과 같은 공적 업무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하다. 6)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에 대한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정한 문화 교육의 목표는 기존의 연구에서 본 연구자가 설정한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공통적인 목표와 등급별 목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먼저, 공통적인 목표라는 것은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데 모든 급에서 통용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상황과 담화 상황에서 문화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등급별 목표라는 것은 일반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의 등급에 맞는 문화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초급의 목표는 한국어 표준 교

육과정 초급에서 제시한 총괄 목표 중 1급과 2급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 교육 목표로 제시하여 그 내용은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고, 중급의 목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중급에서 제시한 총괄 목표 중 3급과 4급을 아우를 수 있는 목표로 제시하여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고, 고급의 목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급에서 제시한 총괄 목표 중 5급과 6급을 아우를 수 있는 목표로 그 내용은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 비교를 넘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다’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목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화 교육의 목표⁸⁾

분류	문화 교육의 목표	
공통적인 목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상황과 담화 상황에서 문화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등급별 세부 목표	초급	외국인 학습자가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급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고급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 비교를 넘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까지 이해할 수 있다.

8) 정원기,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 목표에 따른 문화교육 방안 연구 -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제3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2쪽.

4. 문화어의 개념 및 문화어를 통한 교육방안

1) 문화어의 개념

문화 교육의 목표에 따른 문화 교육 방안으로 문화어를 통한 문화 교육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전 문화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어란 무엇인가? 문화 어휘라는 용어는 1964년 Nida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서경석(2003)에 의하면, 문화적 어휘는 문화적인 의미가 어휘 의미의 중심부에 있는 어휘를 가리키며, 어휘의 다양한 분야 중 실생활 어휘에서 문화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⁹⁾

또한 문화어는 어휘의 의미가 단순한 문자로서의 의미가 아닌 해당 어휘가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어의 경우 일반적인 어휘를 포함하여 관용표현, 속담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박영순(2011)은 문화어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¹⁰⁾

- (1) 요즈음은 세배하는 풍습이 많이 사라졌어
- (2) 김 선생님은 정말 선비야
- (3) 한복은 언제 봐도 아름다워
- (4) 지금 한국에는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

9) 이양금, 「한영 대조를 통한 한국어 문화어 교육 방안 연구-관용어, 연어, 속담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7쪽, 재인용.

10) 박영순, 「문화어를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제6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20쪽.

(5)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야

위에 제시한 예들은 문화어의 예이다. 세배, 선비, 한복, 세종대왕 같은 어휘의 경우 일반적인 문자로서의 의미가 아닌 어휘 자체에 한국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의 경우 대표적인 문화어인 속담의 예이다. 이러한 문화어의 경우 일반적인 어휘와 다르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수는 있어도 한국 문화를 모르고는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화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를 모르고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문화어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

본고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 목표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4가지 단계는 기존 연구에서 본 연구자가 제시한 문화 교육 방안¹¹⁾에 따라 이해 단계, 적용 단계, 생산 단계, 평가 단계로 나누어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각 단계는 학습자의 문화어 인지 능력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고 역행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는 등급에 맞는 문화어를 제시하여 문화교육을 진행한다.

① 이해 단계

11) 정원기,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 목표에 따른 문화교육 방안 연구 -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12-14쪽.

본 단계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문화와 한국 문화의 일차적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본 단계에서 제시한 시각 자료를 통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배경 지식의 활용으로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에 일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의 탐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초급의 경우는 그림 자료만을 제시하여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를 탐색할 수 있지만 중, 고급에서는 해당 문화어를 바로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당 문화와 관련된 명확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문화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위 계화 시킨 단계를 생략하여 바로 생산 단계 또는 평가 단계로 건너 뛸 수 있다.

② 적용 단계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단계에서 일차적인 접근으로 문장의 의미를 탐색했다면 적용단계에서는 탐색한 문장에서의 문화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실제 담화 상황이나 다양한 매체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는 본 단계에서 제시된 문화어에 대한 한국 문화 내용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어휘와 표현이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해

당 문화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담화 상황이나 매체 등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 항목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자료에 해당 문화 항목이 잘 드러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활동 역시 외국인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담화 상황이나 매체 자료도 실제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 역시 이해 단계와 마찬가지로 위계화 시킨 단계를 생략하여 바로 평가 단계로 건너뛸 수 있고,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지 못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다시 이해 단계로 역행이 가능하다.

③ 생산 단계

적용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면, 생산 단계에서는 인지한 문화어와 관련된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문화 항목의 확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당 문화어를 이해단계와 적용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하였다면 생산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해당 문화어와 관련된 문화 항목의 확장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단계는 해당 문화어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는 제시된 매체자료 또는 시각 자

료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적용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한 해당 문화어와 관련하여 문화 항목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문화어와 관련된 문화 항목을 확장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사가 주의할 점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문화어를 인지하는 것이 아닌 해당 문화어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단계 역시 적용 단계와 동일하게 해당 문화 항목을 인지하지 못 하였을 경우 적용 단계로 또는 이해 단계로 역행이 가능하다.

④ 평가 단계

본 논문에서 위계화 시킨 단계별 문화 항목 교수 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이해-적용-생산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 항목을 올바르게 인지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 평가와 외국인 학습자 단계별 수행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문화어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단계마다 진행되는 평가의 항목에 체크를 하면서 각 단계에서 문화 어와 관련된 수행이나 문화어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교사는 각 단계에서 문화어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 때의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단계는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단계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개

개인의 태도에 따라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를 인지하였는지 못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문화 항목과 관련된 문화어를 올바르게 인지했을 경우 평가 단계가 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계를 역행하여 생산, 적용, 이해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어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화 교육은 필요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중요하도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그 의미를 모른다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어를 통한 문화 교육을 위해 먼저 문화의 개념과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목표와 그에 따른 본 연구자의 문화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문화 교육 목표에 따른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 교육 목표는 공통적인 목표와 등급별 세부 목표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이해-적용-생산-평가의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화어를 외국인 학습자에 노출 시켜 일차적인 교육으로 일반적인 어휘의 의미를 교육하는 것 이해 단계라면 적용 단계는 이해를 통한 문화어의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생산 단계는 다양한 매체 혹은 실제성이 있는 담화 자료 등을 제시하여 해당 문화어를 학습자가 스스로 확장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평가 단계의 경우 단계마다 진행되는 평가의 항목에 체크를 하면서 각 단계에서 문화어와 관련된 수행이나 문화어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고 교사는 각 단계에서 문화어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 때의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단계 ‘이해-적용-생산-평가’의 단계는 학습자의 이해도와 수행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고 역행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문화어에 대한 방안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단계를 거쳐 해당 문화어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이나 담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추후 과제는 등급별 문화 교육 목표에 맞는 문화어를 선정하여 이론에 그친 교육 방안에 대해 실제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방안이 질적,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국의 문화 항목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곽지영 외,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참고 논문

김수진,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연구-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0권(제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31-58쪽.

박영순, 「문화어를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제6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123-156쪽.

이양금, 「한영 대조를 통한 한국어 문화어 교육 방안 연구-관용어, 언어, 속담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정원기, 「외국인 학습자 등급별 목표에 따른 문화교육 방안 연구 -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영토연구』, 제3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03-129쪽.

——, 「소설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의 실제」, 경희대학교 비교문화 연구소 가을학술대회, 2008, 18-28쪽.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Education Plan for Foreign Learners through Cultural Language

Jung Won Ki¹²⁾

This paper is a research paper that presents cultural education to foreign learners for general purposes. When educating culture in communication-orien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various materials are used as sanctions to educate culture. In this paper, cultural education through cultural languages was presented. First, the concept of culture and the need for cultural education were revealed, and cultural education measures through cultural languages were presented through four stages of "understanding-application-production-evaluation" according to the cultural education goals of each grade. The four stages of 'understanding-application-production-evalu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omitted or reversed depending on the learner's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Through these step-by-step cultural items, foreign learners are expected to correctly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use it in communication or discourse situations while

12) Hankuk University of Education, Lecturer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with the cultural items through stage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cultural language, cultural education goals, step-by-step cultural education

정 원 기

전 자 우 편 : jk1135@naver.com

논문 접수일 : 05월 31일

심사 완료일 : 06월 18일

게재 확정일 : 06월 24일

문화영토연구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북구에 두며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연구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문화소양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문화영토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②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 ③ 효 문화의 확대 및 재생산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④ 민족문화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 ⑤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5조 (이익공여 무상의 원칙)

1.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2.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3.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명
- ② 이사 5명
- ③ 감사 1명

2.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 를 대행한다.
2. 이사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④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⑤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제 3 장 이 사 회

제15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신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⑦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제5조 제3항의 규정 외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제18조 (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0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5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26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회의의 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5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변경사유서 1부
- ②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조선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및 투고 논문 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 및 권한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2인, 편집위원 8인 이상, 편집간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촉)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 중 호선에 의해,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관련 분야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국내외 학술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① 본 학술지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높고 학술 활동이 활발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국내외 6개 이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대학 소속 교원이 편집위원 총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3. 편집간사는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문연 이사장이 임명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를 도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업무와 활동

제7조 (업무)

-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기획, 심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 3.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결과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성립)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소집된 편집위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 중 제반 안전에 대한 의사를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4. 편집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전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11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한다.

제12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관한 의무)

1.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2.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 절차)

1.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로 진행한다.
2. 1차 심사는 편집간사가 투고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특정 기관(학교)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1/3을 초과하게 될 경우, 논문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들 중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9. 심사 결과 ‘수정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0. 3차 심사는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심사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단, 3차 심사는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90일)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심사소견), 종합 평가(게재여부), 심사 총평(심사내용)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다음 5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각의 기준마다 상·중·하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논문의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주제로 적합한가?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의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 ③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 ④ 논리전개의 객관성- 논문의 자료는 적절하며 논리전개의 과정이 엄밀하고 객관적인가?
 - ⑤ 학계 기여도- 연구결과의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3. 종합 평가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4. 심사 총평은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1.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2.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3점, 수정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불가-0점을 부여하고, 상위득점자 순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타 자세한 심사 절차와 방법은 제14조의 심사 절차와 제15조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이의 신청)

1.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치를 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의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에 수록될 논문의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투고범위

1. 『문화영토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① 국가의 소프트파워인 민족문화의 세계화 현상
 - ② 우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 ③ 국내외 한류(K-Culture)의 현황과 확산 방안
 - ④ '문화영토론'에 대한 학술적 분석
 - ⑤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관련성을 인정한 주제
2. 투고된 연구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자격

『문화영토연구』의 투고는 '문화영토론'에 관심이 있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제4조 연속투고 금지

1. 연속투고란 직전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가 다음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연속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학회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연속투고는 금지한다.
2. 단, 복수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다음 호에 단독으로 연속투고 하는 경우, 반대로 단독투고 이후에 복수의 저자들과 함께 투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투고원고의 작성

1.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번역문 수록여부를 결정한다.
2. 모든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의 초록은 원고지 3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는 5개 내외를 제시한다.
3. 모든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6조 투고원고의 체제

1.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위)-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영문 초록-영문주제어]
2.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메일주소를 명기한다.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4. 제목의 번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여한다.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제7조 인용

1. 인용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한다. 반면, 인용 내용의 분량이 많은 경우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좌로부터 5글자를 들여 써야 한다.
2. 인용하는 내용이 외국어로 기술된 경우 번역하여 신는다. 단, 원어를 병기할 경우 각주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증간의 내용을 생략할 경우 (……) 말줄임표로 생략을 표기한다.

제8조 각주의 표기

1. 단행본

① 국문도서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10쪽.

② 외국도서

필자명, *저서명(이탤릭체 표기)*,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Martinus Nijhoff, 1973, p. 27.

※ 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 이름을 모두 표기하며,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저자 1인 이름을 표기한 후 외(영문의 경우: et al.)로 표기한다.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

① 국문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이제현, 「문화콘텐츠의 창작」,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가현출판, 2020, 16쪽.

② 외국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대표저자(편자), *저서명 또는 학술지명(이탤릭체 표기)*, 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p. ○.

예)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p. 27.

3. 한글 번역본

필자명, 번역자명 옮김,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베르너 쾰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36쪽.

4. 학위논문

필자명, 「논문제목」, 소속 대학 및 학과,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

예)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0쪽.

5. 정기간행물 또는 저널 속의 논문

① 국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제○권(제○호), 학회명, 출판년도, ○쪽.

예) 박선옥, 「스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71쪽.

② 영문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이탤릭체 표기), Vol.○, No.○, 출판년도, p. ○.

예)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p. 23.

6. 기타 자료

① 일간신문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 00면.

② 온라인 기사

기자이름,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연월일(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③ 온라인 자료

[제목], url, (검색일자: 0000년00월00일)

예)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자: 0000년 00월 00일)

7. 중복된 참고문헌 인용

① 국문인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 위의 글(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 (위의 글), 10쪽.

②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저자명 명기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김숙자, 앞의 책 (앞의 글), 17쪽.

베르너 쾰바르트, 앞의 책, 23쪽.

- ③ 같은 저자의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명까지 작성하며, 논문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 조광조, 『문화콘텐츠학의 기초』, 17쪽.

조광조, 『문화와 소비』, 20쪽.

- ④ 영문(외국어)의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표기한다.

예) *Ibid.*, p. 25.

- ⑤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 표기한다.

예) Longaker, M. G., *op. cit.*, p. 16.

제9조 참고문헌 표기

1. 참고문헌은 단행본, 참고논문, 기타자료로 구분하고, 단행본을 참고문헌의 최상단에 표기한다. 배열은 가나다 순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행본

② 참고논문

③ 기타자료

인터넷, 기사 등의 자료는 '기타자료'로 표기하며 참고문헌 최하단에 표기한다.

2. 참고문헌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위 1과 같이 세분하는 대신, 국내문헌(가나다 순), 외국문헌(알파벳순)만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①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②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③ 외국저자의 인명이 다르게 표기된 번역서들을 복수로 인용하는 경우

외국저자의 인명은 통일해서 사용한다. 각주와 참고문헌에도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한다. 단, 본문에서 맨 처음 인용 시 각주를 활용해 인명을 통일했음을 밝힌다.

각주 예) 본 연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Adam Smith를 ‘애덤 스미스’로 번역하고자 한다. 동일인을 ‘아담 스미스’로 번역 표기한 저술에 대해서도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애덤 스미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 ④ 복수의 저자가 쓴 단행본 안의 논문이나 글을 인용할 경우 대표저자 한 사람만 표기한다.

예) 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대중문화와 소비』, 김시습 외 지음, 신예문화, 2020.

4.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① 단행본

김숙자, 『문화콘텐츠학』, 문화영토, 2020.

김시습·류방택, 『고색 문화와 사치』, 신예문화, 2020.

조광조, 『문화와 소비』, 문화시티, 2019.

베르너 쾰바르트, 이상률 옮김, 『사치와 자본주의』, 문예출판사, 2017.

※ 동일 저자의 단행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단행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② 참고논문

박선옥, 「스티디코리안 K-POP 한국어 콘텐츠 개선 방안 연구」, 『문화영토연구』, 제2권(제1호), 문화영토연구원, 2021, 163-192쪽.

조광조, 「K-pop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태종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Ralph Norman Angel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Longaker, M. G., “Adam Smith on Rhetoric and Phronesis, Law and Econom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47, No. 1, 2014.

※ 동일 저자의 논문이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출간일 순서로 가장 빠른
논문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③ 기타자료

[태권도 역사],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2>, (검색일
자: 0000년 00월 00일)

※ 동일 저자의 기타자료가 참고문헌에 수록될 때는 게시일 순서로 가장
빠른 자료에 저자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제10조 부호의 사용

1.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책: (자판 입력)겹낫표(『 』)
 - ② 작품: (자판 입력)낫표(「 」)
 - ③ 전문용어: (자판 입력)홑낫표(〈 〉)
2.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저자의 표시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2.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
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제12조 원고의 투고

1. 투고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일자에 따라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논문의 투고는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kish1691@naver.com]

제13조 투고료 및 원고료

1. 투고를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 심사료는 면제된다.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 및 추가 인쇄료는 면제된다.
3. 게재된 논문에 한해 한시적으로 ₩500,000(세전)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4. 원고료 지급 시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 게재 논문 저작권

『문화영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문연이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연은 이를 승인한다.

제15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2호의 간행(2021. 12. 31)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간행물 성격)

『문화영토연구』는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K-Culture 전 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실는다.

제4조 (간행 형태 및 시기)

1. 『문화영토연구』는 문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문화영토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제5조 (심사 대상 및 방법)

1. 투고된 원고 중에서 문연의 일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심사방법은 “『문화영토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4장. 투고 논문의 심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 (연구 윤리)

『문화영토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는 “문화영토연구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간행물 열람 및 배포)

『문화영토연구』는 전자책 형태로 간행되며 민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록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문연 및 관련 연구 기관 보관용으로 소량의 학술지를 인쇄 배포한다.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 별쇄본과 학술지를 배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영토연구』 제2권 1호의 간행(2021. 6. 30)부터 적용한다.

문화영토연구 학술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재)문화영토연구원(이하 '문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문화영토연구』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문연의 연구윤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문제 발생 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연 발행학술지 『문화영토연구』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진행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

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복투고'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심사 종료 전에 타 학회(혹은 기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의 범위)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1.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기구이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관련 분야 전공자를 추천받아 문연 이사장이 위임하되,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한다.
4.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심의요청)

1.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문화영토연구』의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제반 연구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의에 절차에 따른 심의가 요청되면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등)

1.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절차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소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제소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피제소자에 대해 서면으로 권고, 시정요구, 중재,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1. 위원회의 조사과정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2.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조사과정은 물론 조사과정 종결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상충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제소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관련 제재 조치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은 게재(투고) 취소 및 삭제한다.
2.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 ① 표절의 경우, 영구히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② 위조 및 변조의 경우,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③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및 중복게재의 경우,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문연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4.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고의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허위제보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허위제보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4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간 『문화영토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문연 홈페이지 및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3.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조사 방해 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조사 방해 행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 장 세부 시행지침

제15조 (연구윤리 규정 게시)

문연 홈페이지에 “『문화영토연구』연구윤리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윤리교육의 확산을 도모한다.

제16조 (연구윤리 자기 점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 투고 시 사전에 투고논문이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점검[체크리스트]”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제17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권 1호 논문 심사 경위

투고 마감일	2023년 6월 12일
총투고 논문 수	8편
심사위원 수	편당 3인 이상
심사 마감일	2023년 6월 18일
수정 논문 접수	2023년 6월 23일
총 게재 논문 수	4편
논문 게재율	50%

임원 명단

이사장	홍일식
이 사	손대오, 박종렬, 김정우, 김윤선
감 사	이대명
편집위원장	홍성걸(국민대) · 김정우(고려대)
	김윤선(고려대), 윤애경(창원대), 김찬기(한경대), 최영희(서울과기대),
편집위원	장은진(경성대), 장만호(경상대), 홍성구(경북대), 조은하(강원대), 오재혁(건국대), 김공숙(안동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배려가
文化領土研究院의 힘이요 채찍입니다.

(財)**文化領土研究院** 후원계좌
하나은행 : 187-910009-37605

(재)양영재단 · SJL파트너스
후원으로 출간되었습니다.